

INSS 연구보고서 2020-1

# 2020 | INSS Research Report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와 전망

고재홍

INSS 연구보고서 2020-1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와 전망 | 고재홍

# 2020 |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1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와 전망

고재홍 kjh0022@inss.re.kr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02-6191-1111 www.inss.re.kr



비매품/무료  
9 4340  
9 791189 781262  
ISBN 979-11-89781-26-2  
ISBN 979-11-89781-03-3(세트)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INSS  
Research  
Report

---

INSS 연구보고서 2020-1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와 전망**

---

고재홍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와 전망

---

고재홍

## 고재홍 (高在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관심영역은 북한의 군부동향 및 군사력, 군사전략 문제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북한의 군축제외와 군부위상의 변화: 정량적 접근』, 『북한의 군(軍)통제연구: 견제와 균형의 지속』, 『김정일체제의 북한군연구』,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연구』 등이 있다.

# 목차

국문초록	6
<b>I. 서론</b>	<b>8</b>
<b>II. 북한군의 변화문제에 대한 논의</b>	<b>14</b>
1. 북한군과 변화문제	15
2. 북한군 변화의 배경요인	21
<b>III.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위상</b>	
<b>: 탈선군화와 위상격하</b>	<b>38</b>
1. 북한군 위상변화와 특징	39
2. 북한군 위상의 변화상	43
3. 북한군 위상변화의 의미와 영향	53
<b>IV.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무력</b>	
<b>: 5대 비대칭전력 강화</b>	<b>58</b>
1. 북한군 무력변화와 특징	59
2. 북한군 무력의 변화상	61
3. 북한군 무력변화의 의미와 영향	65

<b>V.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간부</b>	
<b>: 간부통제와 세대교체</b>	<b>70</b>
1. 북한군 간부변화와 특징	71
2. 북한군 간부의 변화상	74
3. 북한군 간부변화의 의미와 영향	80
<b>VI. 북한군의 변화전망</b>	<b>88</b>
1. 위상변화의 전망: 김정은의 정책결정권 강화	89
2. 무력변화의 전망: 전술핵 개발가능성과 재래무기의 현대화	91
3. 간부변화의 전망: 장기집권 기반의 세대교체	93
<b>Abstract</b>	<b>98</b>
<b>참고문헌</b>	<b>100</b>

## 국문초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가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변화의 지향점이 김정은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대내외 정책 변화의 시작인지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선군화’에 따른 북한군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북한군의 무력 부문은 비대칭 전략무기의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군의 주요 간부 부문에서는 젊은 지도자에 부합한 세대교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북한군의 위상 하락은 당의 군통제 확대를 가져왔고 비대칭 전력의 강화는 기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군 간부들의 빈번한 수직적 교체는 주요 간부로서의 경험과 자질의 부족을 가져왔다.

향후 북한은 전술핵의 개발 가능성과 함께 재래식 전력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군력강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김정은은 군부장악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향후 30~40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핵심어

김정은, 북한군 위상, 무력, 간부, 장기집권

## I

## 서론

2012년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은 다양한 부문에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국가통치기구이자 군사지도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는 폐지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다시 부상했다. 과거 북한군 위상의 상징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선군정치’는 ‘탈선군화’에 의해 퇴색되어가고 군사지휘관에 비해 한 계급 아래였던 정치지휘관들이 군사지휘관과 동급이 되면서 군 통제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북한군의 무력은 비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변모했으며, 전통적인 육·해·공 중심의 3군체제와 군 창건일이 변경되었고, 열병식은 매년 혹은 1년에 2회 나 개최하는 등 일상화되었다. 군 간부들의 빈번한 교체와 승진·강등·복권이 반복되고 최고지도자의 군관련 공개활동에 있어 군부인사의 수행은 감소되었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4차례 핵실험과 40여 회에 이르는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북한군의 미사일로켓트사령부는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ICBM을 보유한 ‘전략군’으로 성장하였다. 2019년 이후에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군의 간부교체와 관련, 자연적 결손이 아닌 경우 거의 교체되지 않았던 군 수뇌부 인사는 수시로 교체되거나 숙청되었으며 예전에 거의 볼 수 없었던 군 주요 간부들의 계급 강등과 복권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 외, 1974년 이래 유지되어 온 4월 25일의 북한군 창설일은 2018년에 2월 8일로 변경됨으로서 북한군의 성격과 위상은 ‘항일’의 빨치산의 군대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정규군’으로 격하되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군부대 시찰활동은 과거 김정일의 건강을 고려한 지역별 근접부대 방문시찰 활동에서 김정은 집권이후 장거리 소외지역 부대방문 및 협동군사훈련 참관과 지도활동에 집중되었다.

이렇듯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북한군의 변화 모습은 군의 위상 부문에서는 ‘탈선군’과 함께 군의 위상 하락 현상을, 북한군의 무력 부문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대남 비대칭 전력 강화 현상을, 군의 간부 인사 부문에서는 주요 간부들의 빈번한 교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사지휘체계나 군사전략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나 단편적으로만 공개되고 있어 이 부문의 연구는 보다 많은 추가 관련 자료의 공개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집권이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변화의 모습들은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가지고, 어디를 지향하는 것일까?

북한군의 변화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군의 변화 의도나 지향점이 김정은의 공고한 군부장악과 장기집권을 위한 것인지, 체제의 점진적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무력적화통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술적 변화인지 등이다. 변화의 배경과 관련해서도 어떤 요인이 증점적으로 작용한 것인지, 변화는 타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군 스스로의 자율적인지와 같은 물음이다.

상기의 의문들에 대한 접근은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군의 변화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래 북한군의 모습이나 대내외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군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북한 체제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 미래에 대한 이해

와 동일시될 수 있다.<sup>1</sup>

그동안 북한군 연구는 북한군 관련 연구 자료의 부족뿐 아니라 군 관련 자료의 비밀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적 관심이나 접근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북한은 군 관련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북한군 병력 규모나 무력의 구성, 지휘체계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체계적 정리도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김정은 집권이후 약 8년 동안 단편적이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는 군 관련 변화에 대한 공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예를 들면 핵실험 관련 사실을 비롯해 다종다양한 무기들의 시험 실시 자료와 설명, 정기적인 군 승진인사 및 중요 보직이나 계급 변경과 관련한 사항, 열병식과 군사훈련 관련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군 관련 공개활동 기록영상, 군 내부분건과 강연자료, 영화, 시, 소설, 회화, 사진 등의 군 관련 문학작품들, 북한군의 정치·경제·사회 참여활동 소개, 탈북 군인들의 증언과 회고록 등등 부족하나마 북한군의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공개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다만, 공개된 자료라 할지라도 신뢰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교차비교 등 회의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한적이거나 북한군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분석·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에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시되었거나 잘 알려져 있지

1 북한군 변화문제에 대해서는 상기의 접근 이외에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군의 대내외 안보역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안보역할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 정치적 함의, 대남정책의 함의, 군사전략에의 함의 등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 연구 등이다.

않은 북한의 군사전략이나 군 지휘체계, 병력 규모의 변화 부문은 제외시켰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군사전략 계획과 정확한 군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자칫 추정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일정하게 북한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위상 부문, 무력 부문, 군 간부 및 조직 부문에 대한 변화현상과 특징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 배경, 의미와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의 지향점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 북한군의 변화문제에 대한 논의

1. 북한군과 변화문제
2. 북한군 변화의 배경요인

### 1. 북한군과 변화문제

#### 가. 북한군의 개념

북한군<sup>2</sup>의 변화문제는 연구대상으로서 북한군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 변화연구를 위해 북한군의 개념과 구성을<sup>3</sup>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armed forces)이라고 할 때 ‘한 국가나 특정 집단의 무장군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군대’란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화된 군인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군(軍)이라는 용어 사용도 병사들의 조직과 무장집단을 의미하는 ‘군대’(armed forces)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sup>4</sup> ‘군대’는 ‘군사’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상비적인 무장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sup>

북한에서 ‘상비적인 무장집단’인 군 혹은 군대는 다시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에서 정규무력은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

2 한국전쟁이후 북한군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기술한 문헌은 적지 않다. 그중 북한연구소 편, 『북한군사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장명순, 『북한군사연구』(서울: 팔복원, 1999); Joseph S. Bermudez, Jr,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n* (N.Y.: I.B.Tauris, 2001);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서울: 황금알, 2004);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군사』(서울: 경인문화사, 2006) 등을 들 수 있다.

3 북한군의 개념과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재홍, 『김정일체제의 북한군연구』(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p.69-80 참조.

4 과학원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상』(평양: 과학원출판사, 1955), p.413.

5 백과전서출판사 편, 『백과전서 1권』(평양: 백과전서출판사, 1983), p.518.

내무군(구 조선인민경비대)으로 설정하고, 민간무력은 노동적위군(구 노동적위대)과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로 설명하고 있다.<sup>6</sup> 군대를 구성하는 무력은 다시 유형무력과 무형무력으로 구분된다.

비록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내무군(이하 내무군)을 정규무력으로 구분하고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내무군은 정권무력으로 분리될 수 있다. 과거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은 침략전쟁의 격퇴와 조국통일의 역할을 담당하고 내무군은 주민 이익보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을 노동당의 ‘정규혁명무력’으로 설정해 왔다.<sup>7</sup>

이 글에서 북한군은 정규 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의미하며 편의상 ‘북한군’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북한의 군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변화해 왔다. 1948년 2월 8일 창군 시기에 북한군에는 당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당의 군대라기보다는 국가의 군대, 통일전선의 군대로 불리어졌으며<sup>8</sup> 한국전쟁 이후에는 ‘조선인민군’은 ‘혁명군대’이자 ‘인민군대’로서 “침략전쟁을 격퇴하고 조국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로 정의된 바 있었다.<sup>9</sup> 1961년 9월 18일 제4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제66조에서 북한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sup>10</sup> 이라는 당의 도

구적 지위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르러 북한의 군대는 곧 ‘국가이자 당’으로 불리어졌다.<sup>11</sup>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등장한<sup>12</sup>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이 30년 만에 개정된 이래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을 비롯해 김정일과 김정은 개인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되었으며 동시에 노동당의 노선을 뒷받침하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였다.<sup>13</sup> 다시 말해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이자 당의 군대이며 최고사령관의 군대”라는 복합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렇듯 북한군의 도구적 지위와 역할의 규정에 따른 북한군의 개념은 북한의 역사에서 고정 불변의 것이기 보다는 그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북한군의 개념과 더불어 북한군에 대한 인식이나 의미도 변화가 가능했다. 북한군의 지위와 역할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듯이 북한군에 대한 인식도 관찰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예컨대, 북한군 최고사령관에게 북한군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정치군사적 의지를 실현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북한군 간부와 병사들에게 북한군은 ‘통일을 달성하는 물리력’이라는 공식적 실체

6 외국문출판사 편집부 편, 『문답집 4 조선에 대한 리해(군사)』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15.

7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p.112-113.

8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1958. 2. 8),”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73.

9 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사전 4』, p.587. 북한의 ‘민간군사복무증서’에서는 복무 이유를 최고사령관을 옹위하고 조국통일위업 수행과 조국보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당규약(1961. 9. 18)」, 제66조; 「당규약(1980. 10. 13)」, 제46조.

11 『로동신문』, 1997. 4. 10;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이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30.

12 2020년 9월 이전 김정은의 비공개 등장이 확인된 시기는 기록영화상 2008년 말 경으로 김정일과 함께 2008년 12월 27일 공군 1701군과 공군 323군부대를 시찰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 「당규약(2010. 9. 28)」, 제46조.

14 “허영춘 대표의 토론,” 『로동신문』, 2016. 5. 8.

이외에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자 신분상승을 꿈꾸는 기회  
의 무대일 수 있다.<sup>15</sup> 마찬가지로 노동당 관료들에게 북한군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어가지는 타협과 경쟁의 상대이며<sup>16</sup> 북한의 일반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북한의 군은 강력한 적으로부터 안전을 대가로 지  
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sup>17</sup>

이와 같이 북한군이 갖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 인식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가변성과 다의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북한군의 개념과 지위 등이 북한에서 가변성을 갖는 실체라고 한  
다면 북한군이 ‘무력적화통일의 주도세력’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  
혹은 ‘공존의 물리력’으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군이 더 이상 안전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북한 경제발전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  
는 ‘군’이란 목적론적·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의 정규무력 집단으로서 최  
고사령관을 옹위하며 외부의 침략을 저지하고 조국통일의 사명을 갖는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이해될 수 있다.<sup>18</sup>

15 국방연구원 편, 『북한군 현 실태 (I)』 (서울: 국방연구원, 2014), pp.226-301.

16 황장엽은 “국가예산에서 군사예산이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른 예산집  
행을 다 중단하고 군대가 요구하는 대로 자금과 자재를 대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예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www.nkd.or.kr (검색일: 2011. 5. 15).

17 김일성,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1), pp.247.

18 북한군의 목적론적 정의는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지(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 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조선대백과사전』, p.113; 『백과전서 4』, p.587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형태적 관점에서 북한군은 어느 국가에서와 마찬  
가지로 “전쟁에 대비하는 상비적인 무장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경우 북한군은 “전쟁에 대비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부문들의 통합체”가  
되며 북한군의 변화란 북한군을 구성하는 부문들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군의 정의는 북한군 변화연구를 위한 대상과 범  
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나. 북한군 변화의 연구대상과 범위

북한에서 ‘군사’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 군(사)비, 무기, 전쟁 등에 관  
한 일”로 매우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군대나 군비, 무기 등이 전쟁  
수행과 관련된 중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북한군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  
하여 조직된 상비적인 무장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적, 인적, 기능적 부문들의 통  
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변  
화라고 할 때 북한군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적, 인적, 기능적 부문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다시 말해 북한군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무력 부문, 조직·인사 부문,  
군사행정 부문, 위상 부문, 군사비 부문, 군사전략 및 전술 부문, 지휘체  
계 부문, 군사훈련 부문, 병참 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이중 조직 부문의 변화를 예로 든다면 북한군의 조직 부문의 구성은

19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북한군대는 정치조직과 정치사업, 참모조직과 참모사업, 행정후방조직과 행정후방사업, 보  
위조직과 보위사업 등 상호 조직적으로 분리되어있고, 인적으로 이질적이며 기능적으로 구별되어 구성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당정치, 참모, 행정, 보위, 호위, 후방, 교육, 검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 각급 제대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편성된 것은 북한의 정치조직, 참모조직, 행정조직, 보위조직 등 4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조직 부문의 변화라고 할 때 조직의 외부 혹은 내부에서 이들 조직간, 조직내 통제관계나 우열관계 등이 변화가 발생하거나 조직자체의 규모, 신설, 소멸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인적 부문 구성은 군을 지도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당 전문부서 군사담당 간부들, 최고사령부를 비롯한 군조직의 책임지휘관들, 군사령부 및 군단급, 사단/여단 급 책임지휘관을 담당하는 장성급 인사들과 각급 조직의 군관와 병사들로 구분될 수 있다. 북한군의 무력 부문 구성은 무형의 전력과 함께 군종·병종별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군사적 기재와 장비들로 구분된다. 북한군의 위상 부문의 구성은 각종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당중앙위 정치국내 군인사의 참여비율이나 국가 주요 행사시 구성되는 주석단내 군 인사 참여비율, 최고지도자의 군 관련 언행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의 위상 변화는 이들 부문에서 과거와 다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군을 구성하는 위상 부문, 무력 부문, 간부인사 부문, 조직 부문에서의 변화의 대상들은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라디오』와 『조선중앙TV』, 최고지도자의 군 관련 공개활동, 북한의 군사훈련 및 군관련 공개 동영상, 주요 인사의 군 관련 발표, 북한군 관련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것들이다.

첫째,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무력의 개발 및 시험, 무력증강 등의 변화 들 둘째, 군의 위상과 관련된 제도적 규정과 인사들의 변화

셋째, 군 주요 간부들의 교체와 승진, 계급 강등과 복권, 숙청 등의 변화 넷째, 군 조직의 신설과 소멸, 확대 등의 변화 등이다. 기타 군 병력 부문, 군사전략 및 전술 부문, 군 지휘체계 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연구 자료의 취득의 어려움, 자료의 신빙성 등이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추정의 영역이 큰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따라서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변화의 연구대상과 범위는 김정은의 등장 시기 이후 ▲ 군 위상 부문의 변화 ▲ 무력 부문의 변화 ▲ 군 간부인사 부문의 변화 등 세 부문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각각의 변화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분석한 다음 전반적으로 북한군의 변화가 보여주는 각각의 의미와 영향,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북한군 변화의 배경요인

### 가. 북한군 변화의 주체

어느 나라나 군사 부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대내외적 배경요인들이 존재해 왔으며 북한군의 변화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다양한 배

20 북한군의 공격과 방어관련 군사전략의 대강이 공개된 것은 “인민군 창건 23주년기념대회에서 한 민족보위상 상 장 한익수 보고(1971. 2. 8)” 중앙정보부 편, 『북괴군사전략자료집』 (서울: 중앙정보부, 1974), pp.397-416; 당중앙군사위원회, “전시사업세칙을 내용에 대하여,” 2004. 4. 7; 『경향신문』, 2005. 1. 5;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 전면공격 전략의 시현 등이 있었지만 북한 군사전략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군사력과 배치 관련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요인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북한군의 변화 배경요인 논의에 앞서 우선 변화의 주체 혹은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변화의 주체에 따라서 배경요인의 성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군이 군 변화의 주체라면 북한군의 변화는 자율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최고지도자나 당의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혹은 남북 무력충돌 이후 이루어지는 북한군의 변화는 타율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것이다. 이 경우 북한군의 변화는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혹은 당의 노선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종속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군’이 군사기술, 군사전략, 자위권 발동 등에 대해 제한적 자율성을 갖는 실체라고 한다면 핵무력 건설 결정이나 대남 군사도발 같은 북한군의 부분의 변화는 북한군의 자율성이 반영된 최고사령관·당·군부라는 3자간의 타협의 결과이거나 당과의 공생관계 속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경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군 변화와 관련해 북한군의 자율성 유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우리를 비롯해 주변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군부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통제하에서 제한적일지라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북한군의 대남도발이나 군사위협은 북한 군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도발과 군사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최고지도자에 집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의 핵실험이 최고지도자가 아닌 군부의 의견이 반영되었거나 북한군이 주도한 것이라면, 혹은 대남 군사도발이 군부의 자율성에 의해 결정되거나 최고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기존의 북한지

도자 접근 중심의 대북정책 이외에 군부 약화방안이 부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군 연대급 지휘관들에게 현장에서의 자율권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 군부의 자율권에 대해 명확히 공개된 것은 없다. 특히 북한의 대내 정책결정체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sup>2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6월 초에 시작된 북한의 대남 공세 과정에서는 북한군이 당으로부터 분리된 특정 영역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6월 13일 밤 북한 당제1부부장인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예고와 함께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군대가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sup>22</sup> 이에 대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6.17)에서는 군의 금강산 개성지구에 군부대 배치, 모든 전선에서 경계강화 및 비무장지대 GP 재건, 전방지역에서 군사훈련 재개 및 주민 동원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전하면서 “대적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해 빠른 시일 내에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up>23</sup>

21 이민룡, “북한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군대조직의 변화,” 한국군사학회편, 『군사논단』 45호 (2006 봄), pp.86-115; 김진무, “북한노동당의 정책결정체계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군사 4』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6), pp.85-121.

22 『로동신문』, 2020. 6. 14.

23 『로동신문』, 2020. 6. 17.

이와 유사하게 당과 군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표현한 과거 김정일의 일화가 있다. 1970년대 초반 당 조직 및 선전비서인 김정일이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자가용’을 선물로 주려했는데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이를 극구 사양한 적이 있었다. 그때 김정일은 “그 차를 이용하라는 것은 당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수령님께 보고 드려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내려 먹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sup>24</sup>

이와 같이 북한군은 군사기술적 영역과 군사작전 명령권에 있어 당과는 일정 정도 분리되어 있는 군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의 위상이나 권한이 증대할 경우 자율성의 행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군의 자율성이 군사작전에서의 행사권이나 변화의 주도권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북한군의 자율성이 존재하고 그 권한과 범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북한군의 변화는 지도자 혹은 당의 일방적 요구나 명령에 의한 다기보다는 군의 고유한 인식과 필요에 의해서, 즉 당과 군의 이해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비핵화’ 의지는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가? 북한군의 자율성 권한과 행사가 제한적이고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군이 종속되어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최고지도자 개인 의지에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군의 자율성 권한과 행사에 의한 핵개발이었다면 최고지도자의 비핵화 의지의 실현은 북한군과의 타협이 요구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도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변화일 수 있다. 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자율성

의 유무에 따라서 북한군의 변화는 당의 일방적인 요구나 명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군의 고유 권한과 필요에 의해서 즉 당과 군과의 이해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북한군의 변화’라는 것은 당의 의지와 이해에 종속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의 이해에 부합하는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변화요인은 전적으로 북한군의 자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기술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북한군 변화의 대내적 요인

그동안 북한군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대내적 요인으로는 ▲ 국가의 경제력 수준 ▲ 당 노선 결정 ▲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선호에 의한 통치방식 ▲ 권력형 및 대형사건의 후속 처리의 일환 등이 지적되어 왔다.

#### (1) 국가경제력 수준

국가경제력 수준이 북한군의 다양한 부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일국의 경제력 약화는 군사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유지 및 무기개발 부문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sup>25</sup>

1970년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의 소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24 계명성, “제68화 노투사의 흐느낌,” 『위대한 혁명가 이야기 100편』 (평양: 편집부, 2004), p.81 (페이지 임의설정).

25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폴 케네디는 근대이후 강대국간의 국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경제력에 부합하는 군사력의 유지가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며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는 결국 쇠망한다고 주장했다.

거치면서 북한의 국가 경제력의 약화는 1995년~1997년 3년간 군사비 예산을 공개하지 못할 정도였으며,<sup>26</sup> 그에 따른 북한군의 유·무형 전력 유지, 전쟁준비태세, 군사전략의 취약점 증대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취약점을 증대시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국가경제능력 약화는 북한군에 대한 보장사업과 보급의 어려움을 가져와 병사들의 체력저하, 군사훈련의 축소, 사기저하, 기강 해이 및 부정부패의 확산, 부업과 외화벌이 집중, 군민관계 악화 등 무형 전력의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동시에 전쟁대비 전략물자 비축 및 전시 동원준비, 균형적 전력증강 등을 어렵게 만들었다. 남한의 군사능력 향상과 방어 전력증강은 북한의 기보유 군사력의 재편과 군사전략 취약성을 증대시켜 변화를 가져왔다.<sup>27</sup>

또한 국가 경제력 약화로 북한군의 비 재래식과 재래식 균형적 전력증강이 어렵게 되자 한정된 자원을 비교우위에 있는 무기체계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비대칭 전력강화에 집중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5대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 미사일, 잠수함, 방사포, 경보병 중심의 특수전부대 등에 대한 집중증강이다.

그러나 약 128만여 명에 달하는 재래식 정규 병력을 보유한<sup>28</sup> 가운데 불과 30~40만여 명의 병력에 한해 선택적 집중을 한다고 할지라도 128만여 명의 재래식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북한군의 전투력은 전반적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더욱이 균형적 전력발전의 불균형은 북한군의

전투력 불균형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군부대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항공기 도입과 개량,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도입은 물론 항공기 보수와 정비, 재교육 등의 보장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김정은은 2014년 11월 28일 경 공군의 여성추격기대대를 방문하면서 공군비행사들의 휴가를 1년에 2번으로 늘리고 결혼가정에 TV를 선물하는 조치를 하는데 머물렀다.<sup>29</sup> 일반 보병부대나 전차부대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였다.<sup>30</sup>

따라서 북한이 전략핵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육·해·공군의 재래식 무력 유지에 대한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의미해질 것이다.

1999년 7월 3일 창설한 ‘로켓사령부’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3월 ‘전략로켓사령부’로 호칭되었고 2012년 4월 15일 군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전략로켓군’으로 직접 호명하였으며, 2014년 5월 29일 북한매체에서는 육·해·공 이외 새로운 제4군으로 ‘전략군’을 호칭하기에 이르렀다.<sup>31</sup> 그리고 2016년 들어 1만 5천여 명에 불과한 전략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략군절’을 제정하였으며<sup>32</sup> 2017년에는 미분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발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군’의 성

26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201.

27 김진무, “북한 경제난과 북한군의 변화,” 『월간북한』 2013년 11월 (서울: 북한연구소, 2013), pp.24-31.

28 대한민국 국방부 편, 『국방백서 2018』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2018), p.244.

29 자유북한방송, “북한 김정은 왜 공군에 집착하나,” 2015년 2월 3일, 「패션, 역사, 군사의 아침간개 블로그」 <https://citrain64.blog.me/220262040481> (검색일: 2020. 8. 1).

30 김승철 편저, 『김정은의 11가지 딜레마』 (서울: 늘품플러스, 2014), pp.110-121; 국방연구원 편, 『북한군 현 실태 (I)』, pp.459-486.

31 북한은 2014년 3월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기존 ‘전략로켓사령부’를 ‘전략군’으로 개칭했음을 알렸다.

32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조직(창설)해 주신 1999년 7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전략군절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로동신문』, 2016. 6. 26.

장은 전통적인 육·해·공의 재래식 군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전략군’의 성장이 120여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육·해·공군의 재래식 병사들에게 심리적 자신감을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전략군에 대해 대부분의 재래식 부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북한의 전략핵 개발은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당의 노선

북한 노동당의 국가전략 노선 결정 및 당군 관계의 변화가 북한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33</sup>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 하에서 북한의 군은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당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북한군의 모든 정치활동은 당의 ‘령도’ 밑에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sup>34</sup> 북한군의 ‘자위권’ 행사 혹은 군사 훈련 및 작전계획 등과 같은 전문적인 군사 활동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의 ‘령도’ 밑에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의 국가전략노선 변경 등은 필연적으로 북한군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당 통치시스템이

정상화됨에 따라 당중앙위에 의한 국가전략노선 결정은 북한군에서 국가전략노선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북한군의 지위와 역할을 하락, 재조정시켰으며 군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실례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결정함으로써 선군노선에서의 후퇴 징후를 보여주었다.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군이 곧 국가이자 당”이라는 선군노선의 상징이자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 제7기 3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기존의 선군노선을 탈피한 인상을 주었다.<sup>35</sup>

북한 헌법과 관련해서도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sup>36</sup> 기존 ‘선군사상’(3조)과 ‘선군혁명노선’(59조)의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더욱이 제59조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결사옹위”로 표현함으로써 기존 2009년의 헌법 46조에 명시되었던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보위’ 표현을 삭제하였다. 또한 2013년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당 제1부부장인 황병서로 교체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7</sup> 이후 북한은 국가 핵무력 건설에 매진함으로써<sup>38</sup> 다종의 핵심

33 김일기·김보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No. 59 (2020. 2); 김동엽,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편,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2015), pp.77-120.

34 1961년 9월 18일 4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 채택된 「당규약」 제66조에서는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명시하였고 북한군내 당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에 직속시켰다.

35 『로동신문』, 2018. 4. 21.

36 『로동신문』, 2019. 4.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2019)”

37 김동엽, “경제·핵무력 건설 노선과 북한군의 변화,” p.100.

38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2년~2017년까지 약 5년 동안 핵실험 4회, 미사일 발사 총 60발 40여 회를 실시한 반면 1984년 4월부터 1993년 5월의 김일성 생존 시기 미사일 총 19발 12회를 실시하였고 1994년 7월 이래 2011년

힘을 비롯, 다중·다양한 사거리의 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전술유도탄, 기존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 개량 등 다양한 투발수단의 개발과 시험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은 기존 육·해·공 3군종 체제에서 2014년 3월 제4군종으로서 전략군 창설과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년 열병식에서 ‘특수 작전군’ 신설이 확인됨으로써 ‘5군종 체제’라는 군내 조직적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당에서 제시한 군력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무형전투력 증강을 강조해 왔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 부대 전투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sup>39</sup>

### (3) 최고지도자의 선호와 의지

최고지도자의 선호나 의지가 북한군의 변화를 가져오는 배경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은 과거 ‘수령’처럼 당·정·군의 영역에서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이라는 역할분담의 통치체제를 행하고 있다.<sup>40</sup> 수령의 관점에서 당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

는 전위대”이며 북한군 역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영도체계를 보장하는 물리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의지와 선호는 북한군의 변화를 가져온다. 대표적으로 무력 부문과 군간부 인사 부문에서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무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무력 관련 명령, 예를 들어 개발, 시험, 동결, 발사, 배치, 사용 등으로부터 ‘통일대전’을 위한 군력강화 제시<sup>41</sup>, 군의 위상 설정과 군 주요 간부들의 교체, 승진, 기타 군의 상훈, 징벌 권은 최고지도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sup>42</sup> 이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선호와 의지에 따라 북한군 간부 및 조직변화, 군력강화 방향, 군위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집권이후 2016년 7월 국방위가 폐지될 때까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서 국방위원회 개최나 국방위 결정 등이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서 당중앙군사위 확대위원회가 군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부상하였다.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당 제3차 대표자회의 개최 직전인 2010년 9월 27일, 북한군 총참모장 차수 승진명령이 국방위 단독으로 행해졌지만 그 후 북한군 승진 명령은 국방위 단독으로 나온 전례가 없으며 2018년 7월부터는 최고사령관 개인명목이 아닌 집체적 지도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장의 명목으로 북한군

12월 사망 시까지 핵실험 2회, 미사일 총 16발 7회를 실시하여 김정은 시기 5년 동안이 2배 이상에 달한다. 김항록,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미 역량강화전략연구-핵투발수단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2020), p.3.

39 김동엽,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과 군사변화,” pp.92-94.

40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41 “선군영도52돌 경축연회 및 김정은 연설(요지),” [월간북한동향] 2012년 8월호, p.15; (‘조국통일대전’은 김정은이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52돌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 언급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통일대전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4. 3. 26.

42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고유권한은 상기에 기술한 권한 이외에도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의 유지 및 관리 임무권, 북한군대 지휘통솔권, 전시를 포함한 비상사태 선포 지시권 등을 행사한다. 고재홍, 『최고사령관의 위상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57-82.

위관급을 포함하여 승진명령이 나오고 있다.<sup>43</sup> 이는 북한군 장령급 이상의 승진명령을 개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최고사령관이 아니라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모든 간부 계급의 승진명령을 단행함으로써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고, 당의 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군 주요 간부들의 보직 교체와 계급 강등, 복원 등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김정은 집권 시기의 경우 군 주요 간부 교체의 범위와 횟수가 광범위하고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sup>44</sup>

최고지도자의 군 관련 공개활동의 경우 과거 김정일의 북한군 소부대 방문시찰에 중점을 두었다면 김정은의 경우 미사일, 방사포 등 신무기 발사시험과 함께 다양한 병종별 군사훈련, 각종 군사경기대회 참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45</sup>

특히, 2018년 이후 김정은의 금수산 참배나 기타 군 관련 공개활동시 북한군 현역 인사들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당 간부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무기발사시험 참관조차도 현역 군사지휘관보다 당 관료들이 더 많이 참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46</sup>

43 『로동신문』, 2019. 2. 16, 2019. 8. 13.

44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연구』, pp.161-167.

45 통일부 편, “주요인물 동정,” 『월간북한동향』, 2012년 1월~2019년 12월호 참조.

46 2019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25주년 금수산참배 활동; 7월 23일 새로 건조한 잠수함참관 활동; 7월 2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 사격 조직지도활동 등에서 나타났다.

#### (4) 권력형 사건 및 국가행사의 후속조치

권력형 숙청 혹은 국가적 행사의 후속 조치가 북한군의 변화를 가져오는 배경요인으로 보인다.<sup>47</sup>

지난 1955년 남로당파의 숙청, 1958년 8월 북한군내에서 ‘군사폭동 음모 계획’이 적발된 후의 군부숙청<sup>48</sup>, 그리고 1968년 청와대 기습침투 등 대남 군사모험주의 실패에 따라 대남비서 허봉학과 민족보위상 김창봉 등 군 간부 600여명이 숙청되거나 강등, 교체되기도 하였다.<sup>49</sup>

김정은 집권이후 정기적으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즈음, 당 창건 행사 및 정부수립일 기념 차원,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이후나 열병식 개최의 성과 차원, 핵실험·미사일발사 실험,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개최,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2019년 12월 29일의 당중앙위 전원회의 이후 등과 같은 국가적 행사와 성과 차원에서 군 간부의 승진과 강등, 교체 등이 발생하였다.

권력형 숙청 사건으로는 2012년 7월 참모장인 리영호의 숙청, 2013년 11월 장성택의 숙청,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이후, 2019년 8월의 자연재해 관련 주요 군 간부의 교체가 있었고 대외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8월 남북간 대규모 무력충돌위기 이후,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군 주요 간부들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47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연구』, pp.163-167.

48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학교북학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120-124.

49 시바다 미나루 저, 이원복 역, 『김일성의 야망-숙청의 역사 상』 (서울: 겹지사, 1986), pp.180- 191.

특징적인 측면은 상기의 권력형 주요 인사의 숙청과 대형 기념행사와 맞물려 북한군 주요 간부에 대한 비정기적 집단 교체가 빈번히 있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 직전 2012년 4월 순수 당 관료 출신인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면서 9명의 사단장과 4명의 군단장의 교체지시가 이루어진 후 리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하였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2015년 4월 30일 강건종합군사학교에서 처형된 후 군단장급들이 전면적으로 교체되었으며, 2013년 11월 장성택이 ‘국가전복혐의’로 처형된 다음해 초에 북한의 군단장급들의 전면교체가 이루어졌다.

권력형 인사 숙청이후 군간부 변화 사례 이외에 국가적 행사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의 남북간 대규모 무력충돌 위기와 2016년 제7차 당 대회, 2018년 북미정상회담 개최 즈음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군 간부 변화 사례가 보였다. 이와 같은 군 주요 간부들의 교체나 해임 등 경험적 사례는 북한의 당과 군내 최고위급 간부들과 북한군내 차 순위 간부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군 주요 간부들의 전반적<sup>50</sup> 교체 등의 시기를 보면 전적으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개인 의지 혹은 당의 노선 변화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50 전반적 간부 교체 중 호위부, 특수군, 전략군은 제외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전반적’의 의미는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에 대한 이해-정치』, p.67.

## 나. 북한군 변화의 대외 요인

북한군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외 배경요인으로서 ▲ 남북간 군사적 거울영상효과(mirror image)에 의한 변화<sup>51</sup> ▲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식과 영향<sup>52</sup>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외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은 북한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북한군의 지도기관의 변화와 군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다.<sup>53</sup> 지난 탈냉전 시기와 맞물려 북한은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로 소위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군사국가화로 불리어질 정도로 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군의 지위는 “곧 국가이자 당”과 동일시되었다. 군의 역할은 국가보위나 사회주의건설과 경제건설도 담당하는 주체로 확대되었다. 1998년 3월 『로동신문』에서는 구소련의 몰락이 “군대를 비 사상화, 비 정치화함으로써 총권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왔어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고 강조하게 되었다.<sup>54</sup>

김일성 사망 이후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 비상통치체제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노동당의 회의 개최

51 거울영상(Mirror image)효과란 냉전 시기 미소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 반응을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상호 상승작용을 반복하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북간 군비증강이 상호 군비증강을 자극하여 지속적인 군비경쟁을 반복한다는 의미이다. 김근식, “북한의 핵협상,”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2011 봄), pp.148-151.

52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2-3, pp.52-53.

53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동아일보사 편, 『신동아』, 1997년 4월호 (서울: 동아일보사, 1997), pp.306-317. 1996년 12월 동 연설에 의하면 군의 역할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동 연설 이후부터 군이 국가사업과 당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54 “정론-혁명의 기동,” 『로동신문』, 1998. 3. 9.

나 결정 등 지도기능을 정지시키고 북한군이 중심이 되는 비정상적인 통치체제로 이는 대외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가기관 중 국방을 담당하는 부문위원회에 불과했던 국무위원회가 국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핵·미사일 개발 등 ICBM 개발을 가속화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8년 8월 31일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북한군의 군사력 부문이나 조직의 변화 등이 대남 군사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북한군의 군사력증강이나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신설 등과 같이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 혹은 북한군 스스로 개편 계획에 의해 변화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한반도에서 적대 상태인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과 군사력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군의 군사력 발전 방향과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군사적 거울영상 효과에 의해 북한군의 군사력증강 일부분이 한국군의 변화를 밀접하게 고려해 일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sup>55</sup>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군사력 개발의 일부분은 지속적으로 한국 군사력 강화의 한계성과 방어 허점을 공격하는 전력개발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한국군의 최첨단 항공 타격능력에 대한 대응능력 혹은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신 동일한 타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중 다양한 장중단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후 한국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킬체인과 패트리엇 미사일방어망을 건설하면 북한은 킬체인 무력화를 위해 300mm 이상의 신형 방사포, 초대형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KN-23) 등을 개발해 왔다. 기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고체연료사용의 미사일 개발과 자주화 기동, 고폭탄의 개발, 포병무력의 확대와 기동화를 추구했다.

북한의 핵 실험 지속 및 다종의 지대지미사일의 개발위협에 대응해 한국공군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면 북한은 반항공군의 S-300 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고 한국해군에 대응해 Kh-35 대함미사일 도입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사업에 대응해서는 2019년 3천 톤급 잠수함 건조와 기습보복 능력을 가진 SLBM 등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 무력 부문 변화는 최고지도자의 선호나 의지, 국가 경제능력, 당 노선의 변화 등 대내 요인 이외에 남북 거울영상효과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 위상 부문의 변화는 지도자의 선호나 통치방식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고 북한군 주요 간부인사 부문도 최고지도자의 선호와 정책적 의지, 그리고 권력형 및 대형사건의 후속처리 등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이 다양한 대·내외 요인에 의해 북한군의 위상 부문, 무력 부문, 간부인사 부문 등에서 보여진 변화의 모습들은 북한군에 대한 인식과 북한군의 미래 모습,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5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패트리엇미사일 도입 이후 혹은 한국군의 북한군 도발에 대한 항공기 원점 타격 강조 이후 북한은 방사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

# III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위상 : 탈선군화와 위상격하

- 1. 북한군 위상변화와 특징
- 2. 북한군 위상의 변화상
- 3. 북한군 위상변화의 의미와 영향

### 1. 북한군 위상변화와 특징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군의 위상 부문에서 다양한 변화가 보였다. 그 변화의 전반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고군사지도기구로서 당중앙위원회의 부상에 따른 당의 군통제가 확립되었고 둘째,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규정에서 변화가 보였으며 셋째, ‘탈선군화’ 조치에 따른 군의 전반적인 위상 하락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특정 국가나 집단에 있어 군의 위상 문제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군의 정치적 영향력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군의 위상변화란 결국 국가에서 군이 차지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북한군의 위상변화는 군이 당에 종속되어 있는 당군 관계아래에서 군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의 변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높을 경우 군부의 위상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56</sup>

만약 북한군의 위상이 증대한다면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결정에 군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남정책 분야의 경우 물리력 위협 중심의 대남정책을 기본으로

56 이민룡, “북한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군대조직의 변화,” pp.86-90; 김진무,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영향,” pp.85-120.

하는 북한군이 개입할 경우<sup>57</sup> 대남 강경기조가 우선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sup>58</sup> 따라서 북한 군부의 위상변화의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 및 대내외 정책변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군의 위상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최고지도자의 군 위상에 대한 언사,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된 군부의 지위와 역할, 당 주도대회와 군 주도대회 개최비율, 당 정치국내 군부인사 참여비율, 국가 주요 행사시 구성되는 주석단내 군 인사 참여비율이나 주요 행사시 호명 순에 의한 의전서열 등이다.<sup>59</sup>

그러나 북한군의 경우 상기의 지표들이 북한군의 위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지표들로 단정하기 어렵다. 북한 측의 공식적 문헌이나 법적 제도적 규정이 현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도 문제이다. 북한군의 위상 변화가 법적·제도적 규정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30여 년 만의 지도자 교체에 따른 통치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치국내 군 인사 비율이나 주석단내 군 인사 비율과 관련해서도 군인사의 범위를 현역만으로 할 것인지 혹은 군 출신을 포함할 것인지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군인사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은 집권 시기인 8년 동안으로 한정할 경우, 현역 군 인사 비율에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반대로 군 출신을 모두 포함할 경우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군부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경우 과거 군을 우선하는 ‘선군정치’ 시기에 북한군의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군사국가화’ 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북한군은 “국가이자 당으로서” 당의 군통제가 표면적으로 무색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sup>60</sup>

군을 통제하는 당의 지위와 역할은 공식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노동당 규약은 기능을 상실하였고, 노동당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당중앙위 위원도 확충되지 않았으므로 당의 정책적 지도기능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북한군을 통제하는 것은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이었다.

이 시기에 군부인사들의 당 중앙위 정치국 참여비율이 증가했으며 주요 국가행사의 주석단 참여비율도 높았다. 군대 경력은 노동당과 정부의 간부임명 시 우대받았으며 일반 사회 부문의 취업이나 주택배정, 배급에서도 우대받았다.<sup>61</sup>

당 간부의 군 간부로 이동이 금지되고 반대로 군 간부출신들이 오히려 당 간부로 등용되었다.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 간부들이 대내외

57 대표적으로 1960년대 말 김창봉 민족보위상과 허봉학 대남연락부장 주도의 대남무력정책은 1970년대 초 대화를 수단으로 하는 통전부의 대남정책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58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2013. 6. 26, <http://news.donga.com/View?gid=56124124&date=20130626> (검색일: 2013. 7. 1); 2000년대 북한 군부의 남북간 군사분계선 직항로 개설 반대 및 남북철도시범 운행거부, 해주항 개방거부 사례 등이 있다.

59 고재홍, 『북한의 군체제와 군부위상의 관계: 정량적 접근』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pp.43-65.

60 『로동신문』, 1997. 4. 10; 김인옥,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16.

61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연구: 견제와 균형의 지속』, pp.127-137.

주요 정책에 개입한 정황도 보였다.<sup>62</sup>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군의 위상은 과거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군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락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선군정치 시기 주도세력인 군부인사들은 모두 퇴출되거나 교체되어 당 간부들이 중심이 되었다. 선군정치 시기의 군사지휘관 출신이나 군 경력 우대는 사라졌으며 군 정치간부에 당 간부들이 임명되었고 2015년 이후 군사지휘관들은 국가의 대내외 중요 정책결정에는 거의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 2월 2~3일 당중앙위원회와 당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에서<sup>63</sup> 북한군의 당에 대한 절대복종체계를 구축했다. 심지어 제7차 당대회 이후 중요 군사문제 결정에서 조차 주요 사령관급 지휘관들이 배제될 정도였다. 더구나 2019년 1월 신년사에서서는 핵무기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를 강조했지만 이미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존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경제중심노선’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단지 핵개발의 시간을 벌기위한 전술적 변화인지 아니면 당의 전략적 노선의 변경에 의한 결정인지는 시간을 두고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2 2009년 11월 박남기를 비롯한 당 재정일꾼들은 “선군정치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이 무역과 외화관련 업무를 독점하기 위해 노동당으로 국가재정과 무역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제의서를 김정일에게 올렸는데 군부가 이를 거부했으며 나아가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실각시켰다고 전해졌다. 박형중, “김정일, 군과 당 그리고 김정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0. 5).

63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2015. 2), pp.4-5.

## 2. 북한군 위상의 변화상

김정은 집권 이후 과거와 다른 북한군의 위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변화상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sup>64</sup>

첫째, 북한군 위상 하락은 최고군사지도기구로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격상에 따른 당의 군 통제 강화로 나타났다.

김정일 집권기 군 최고지도기관이자 비상통치기구였던 국방위원회는<sup>65</sup>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정책결정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정은이 제1국방위원장이면서도 국방위원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바 없으며, 제7차 당대회 이후인 2016년 7월 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일부 기능을 국무위원회로 이전하였다.<sup>66</sup>

반면 과거 공개적으로 회의 개최나 위원의 교체사실이 거의 알려진 적인 없으며 군 지도기능이 정지되다시피 했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를 대체하고 북한군 최고지도기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9년까지 약 8여년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약 10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및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군과 관련한 정치사업 및 군사사업, 무력건설사업, 간부 및 조직사업, 군부대 보장사업,

64 북한군 위상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보여진 군부위상 하락은 매우 표면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군부위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흥석,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북한 『군엘리트』의 위상변화,” 『군사』 113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p.1-42.

65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정영태,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55-62.

66 『로동신문』, 2016. 7. 2.

보위사업, 군 검열 및 대민사업 등 중요 군사관련 정책결정을 행해 왔다.

그 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소환, 보선이 정기적으로 행사되었으며 북한군 주요 군사정책결정을 추진하는 등 기능적으로 군 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행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김정은 등장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일시와 위원 구성의 변화를 도표한 것이다.

<표 1>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와 위원 변화

당중앙 군사위	2010. 9	2012. 4	2013. 2	2013. 7	2014. 4	2015. 2	2015. 8	2015. 10	2016. 5	2018. 5	2019. 4
1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2	김정은(부)	최룡해(부)	최룡해(부)	최룡해(부)	황병서	황병서		황병서	황병서	최룡해	최룡해
3	리영호(부)	리영호(부)	현영철	장성택	리영길	현영철		박영식	박봉주	박봉주	박봉주
4	김영춘	현철해	장성택	리영길	장정남	리영길		리영길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5	김명국	리명수	김영춘	장정남	변인선	김원홍		김원홍	리명수	김영철	최부일
6	김정각	김영춘	김원홍	김영춘	김원홍	서홍찬		김경욱	김영철	최부일	김수길
7	김경욱	김정각	김정각	변인선	리병철	김춘삼		리병철	리만건	김수길	리영길
8	김원홍	김경욱	주규창	김원홍	김경욱	박영식		김춘삼	김원홍	리영길	노광철
9	정명도	김원홍	김경욱	주규창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최부일	노광철	리병철
10	리병철	정명도	정명도	김경욱	최부일	김명식		서홍찬	김경욱	리병철	정경택
11	최부일	리병철	리병철	김명식	김영철	최부일		김영철	리영길	정경택	서홍찬
12	김영철	최부일	김영철	리병철	윤정린	김영철		윤정린	서홍찬	서홍찬	장길성
13	윤정린	김영철	윤정린	최부일	최경성	윤정린		최영호	2016	장길성	황병서
14	주규창	윤정린	최경성	김영철	김락겸	최경성		김영복		황병서	김재룡
15	최상려	주규창	김락겸	윤정린	서홍찬	최영호		김락겸		2018	리만건
16	최경성	최경성	현철해	최경성	김영춘	김락겸		김춘삼			태종수
17	우동숙	장성택	최부일	김락겸	주규창	김경욱		리용주			김조국
18	최룡해	김락겸									
19	장성택										
탈락자			리명수	현영철 현철해 주규창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변인선		현영철 최경성 김명식	리병철 리용주 김영 김춘삼 김춘섭	박영식 김경욱	리명수

※ 출처: 『로동신문』 각 연월호, 통일부편, 『인명집』 각 연호, 이수원,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7) 등을 참조하여 종합작성하였으며 2015년 8월의 당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개최는 정확한 참석인물이 비공개.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군지도기능이 정상화되면서 군지도기관으로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은 군부라기보다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당중앙군사위는 전시대비 및 군사 문제를 당적으로 다루는 당내 상설적 군 최고 결정 및 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핵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혀 논의된 바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2년 2월 초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중대결정’이 알려진 이후 2월 12일 핵실험이 실시되었으며 2018년 당중앙군사위 제7기 1차 확대회의 개최 1주일 이후에는 핵실험장이 폐기되기도 하였다. 2019년 9월 당중앙군사위 제7기 3차 회의에서는 새로 당중앙군사위원들의 보선과 함께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신임 박정천이 당연직으로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대부분 확대회의 형태로 개최된 바, 확대회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군 최고지휘부 인사들, 군종별·사령부 및 군단급 책임지휘관들, 인민보안성 책임간부들, 국가보위성 책임간부들, 노동당내 조직부 혹은 군사부내 군사담당 간부들, 군수공업관계자들 등 약 9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7</sup>

과거와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확대회의로 개최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토의를 통해 군사문제를 결정하는 기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이 군사업무와 관련된 명령과 지시사항에 대해 당중앙군사위원 뿐 아니라 군의 일선부대의 책임지휘관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

로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김정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은 총정치국 정치위원들이 담당함으로써 북한군내 군사지휘관들의 김정은 지시사항 이행감시와 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sup>68</sup>

따라서 북한군내 주도세력은 당을 대표하는 군 정치위원들이 담당함으로써 노동당의 권위는 높아지고 선군정치 시기 북한군의 주도세력이었던 군사지휘관들의 위상은 하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군내 군사지휘관들의 위상 하락 시작은 2012년 4월 군복무 경험도 없고 실사격 훈련도 해본 적이 없는 순수 당관료 출신인 최룡해가 북한군을 통제하고 대표하는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이다. 또한, 2015년 5월 당조직지도부 과장 출신으로 평방사령부 정치위원을 역임한 박영식 총정치국 부국장이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북한군의 위상 하락은 정점에 달했다.<sup>69</sup> 특히, 북한군 창군 이후 북한군 무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부장에 비 군사지휘관 출신이 임명된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군이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당의 통제하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군의 위상 하락은 법적·제도적 규정의 변화로 나타났다.

북한의 ‘당규약’과 개정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68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 연구-견제와 균형의 지속』, pp.151-154.

69 『로동신문』, 2012. 4. 12, 2015. 7. 12; 선군정치 시기에는 반대로 공군사령관 출신인 조명록이 총정치국장이 되었으며 북한군 창건 이후 총정치국 출신 정치간부가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오진우가 유일하였다. 고재홍,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 연구』, p.106.

67 『로동신문』, 2019. 4. 10.

2004년과 2012년의 ‘전시사업세칙’<sup>70</sup> 등에서 군 최고지도기관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되고 국방위원회는 내각의 부문위원회로 전락되는 등 과거 국방위원회가 차지했던 위상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당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미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의 공개 등장과 함께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제46조에서는 과거 비상설 협의기구였던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상설최고군사기관’으로 격상시킴으로서 당중앙군사위는 북한군의 정치활동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활동을 당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로 부상했다.<sup>71</sup> 법·제도적 규정의 변화와 함께 최고지도자의 공개 비공개 형태에서도 북한군의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였다.

셋째, 군의 위상 하락은 군사기관의 공개 발표 감소 및 군사지휘관 출신들의 권위에 대한 퇴색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초기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군종별 및 사령부급 등 군사기관들의 직접적인 대외적 성명, 담화, 경고문, 문답 등을 통한 위협이 2016년 하반기 이후 감소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군 군사지휘관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오가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처벌로서 계급강등 등을 명령하고 군사지휘관들도 일반 사병과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에 참여토록 하였다.<sup>72</sup> 군사훈련의 참여의 성과에 따라서 군사지휘관의 계

급을 강등하거나 복권시킨 것으로 보인다.<sup>73</sup>

북한군 주요 수뇌부인사들인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이 전례 없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위원이 아닌 후보위원에 머물게 함으로써 공식적 위상을 하락시켰으며 2016년 7월 2일 북한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인민무력부’는 ‘인민무력성’으로 변경되어 국무위원회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전체에 대한 위상도 격하되었다. 2019년 2월 8일 군 창설일을 변경하고 북한군에 대한 호칭은 ‘혁명의 주력군’에서 ‘척후대’로 호칭될 정도였다.<sup>74</sup>

넷째, 군의 위상 하락은 다양한 ‘탈선군화’ 조치로 시행되었다.

‘탈선군화’ 조치란 과거 선군 시기의 군 위상을 높이는 관행이나 정책들의 중지, 전환, 변화 등을 의미한다. ‘탈선군화’ 조치의 대표적 사례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발견될 수 있다. 비록 김정은이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선군정치’를 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만 김정은의 2012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신년사 발표에서 ‘선군’ 용어의 사용 횟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표 2〉 참조).<sup>75</sup> 비록 ‘선군조선’ 등의 용어와 선군절을 기념하지만 2019년 4월 11일 헌법 개정시에 헌법 서문을 제외하고 본문에 있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군부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의 영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0 “전시사업세칙”이란 북한의 전쟁대비 문건 중 하나로서 전쟁시 북한의 정부와 모든 단체의 무력행동지침을 규정해 놓는 문건이다. 2004년 4월의 전시사업세칙의 일부가 확인되었고 2012년 9월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2004년과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비교해 보면 군지도기관의 위상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71 「당 규약 (2010. 9. 28)」, 제46조.

72 김정은은 2014년 3월 16일 육·해·공 주요 지휘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각 군종별 군단장과 정치위원들의 사격대회 실시 등 고위간부의 훈련 참여를 지시하였다.

73 2012년 8월 1일 김정은이 승인한 새 작전계획 수행평가에 따라 계급강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74 『로동신문』, 2019. 2. 9; 세종연구소 편, 『2019 북한동향과 분석』 (서울: 세종연구소, 2020), p.182, 재인용.

75 장광열, “김정은 정권의 상징전략에 관한 연구: 핵무력 완성 선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3권 (서울: 육사화랑대연구소, 2018. 10), p.216.

또한 김정은이 ‘선군’ 명칭을 직접 제외시킨 경우도 있었다. 김정일 생존 시기 명명했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 명칭을 2015년 8월 28일 청년절을 맞이하여 ‘선군’을 뺀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로 개칭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sup>76</sup> 건설의 주력인 청년들이 갖는 선군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때문인지는 명확치 않다.

〈표 2〉 연도별 신년사의 선군용어 사용빈도수

연도별 신년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선군용어 사용빈도	17	6	3	4	2	1	0	0	미발표

김정은이 2015년 8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목함지뢰’ 도발사태와 관련 북한군에 실망했다는 것은 후속조치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9월 말경 목함도발 사태의 관할지역 군단장인 김삼룡 제 2군단장이 함북의 9군단장으로 이동하는 등 군단장 보직의 전면교체 인사가 단행되었다. 동시에 군 승진과 관련 2015년 10월 최고사령관 명령 00104호는 목함지뢰도발 사태와 관련한 북한군 주요 인사의 승진이 아니라 공훈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성원 등 예술인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준 것이다.

76 『로동신문』, 2015. 9. 14, 개칭 이유는 명확치 않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선군’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었다. 2016년 4월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개발과 관련한 『노동신문』 기사는 ‘선군조선의 위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당이 주도하는 ‘선군절’<sup>77</sup> 기념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의 위상 하락이 두드러졌다. 김정일 시기의 ‘선군혁명영도’ 기념대회의 명칭은 2013년 단순히 ‘선군절’로 변경되었고 ‘선군절’ 기념행사는 과거 ‘선군혁명영도’ 기념 대회시 사회자와 보고자를 현역군 출신이 담당하였으나 선군절로 변경 후 사회자와 보고자는 당관료들로 뒤바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선군정치 시기 무산지역 전투기념 보고대회 역시 비 군사지휘관 출신들이 사회자와 보고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7년 8월 선군절에 백령도점령 훈련을 실시한 것과 달리, 2018년 이후 선군절은 특별한 훈련이나 무력시위 없이 지나갔다.

다섯째, ‘탈선군화’ 조치는 군인사의 주요 국가기념행사시 의전서열 하락과 참여 감소로 나타났다.

북한군 주요 인사의 위상을 높여 주는 당중앙위 정치국 정위원 진출이 2018년 초 리명수 총참모장이 탈락한 이후 2019년 9월까지 없었으며 특히,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개최 직후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으로서 북한군 작전국장을 비롯하여 군종별 사령관들이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군 인사의 의전서열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인사의 장의위원 구성에서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8년 8월 17일 김영춘 원수 장의위원

77 선군절은 김정일이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류경수 105탱크여단을 처음 방문한 1960년 8월 25일을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시작일로 기념해 왔는데 김정은이 2013년 ‘국가명절’로 지정하면서 ‘선군절’로 개칭하였다. 선군절 명칭변경은 북한군이 혁명을 영도한다는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원 명단과 2015년 11월 8일 이을설 원수 장의위원 명단을 비교해 보면 2018년에 군부인사들이 후순위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을설 장의위원의 경우 총정치국장이 3번째, 총정치국조직부국장이 6번째, 총참모장이 7번째인데 반해 김영춘 장의위원의 경우 총정치국장 19번, 총참모장 20번, 인민무력상 21번을 차지하고 있다.<sup>78</sup> 주요 국가행사시 주석단 호명에 있어서도 과거 당정치국 위원보다도 앞서 호명되었던 군 주요 인사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후순위로 밀려났다. 2015년 12월 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4돌 기념 추대보고대회에 주석단에는 현역 군사지휘관으로 리영길 총참모장 1인에 불과할 정도였다.<sup>79</sup>

여섯째, 김정은의 공개활동시 주요 수행인원에서 군부인사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매년 2~3차례 행하는 금수산 궁전 참배의 경우 과거에는 최고지도자의 수행의 대부분을 군 인사들이 차지한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 인사 동행비율이 점차 감소되었다. 2019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 기념 금수산 참배에는 당·정·군 의 최고위 간부들이 아닌 당중앙위 핵심 부서인 당조직지도부와 선전부 간부만 대동함으로써 군부인사가 완전히 배제되기도 하였다.<sup>80</sup> 심지어 2018년 이후에는 신무기 시험발사 참관이 나 군사훈련 참관, 건조중인 3천 톤급 잠수함 참관 시에도 군부인사보다는 당 간부들이 수행인원으로 참여하였고 군 간부들은 ‘현지영접’ 위치로 하락하였다.

78 『로동신문』, 2015. 11. 8; 2018. 8. 17.

79 당시 주석단 참여자는 황병서(보고)를 비롯하여 김기남(사회), 최태복, 박영식, 리여길, 리우무, 오국렬, 김원홍, 광범기, 오수용, 김평해, 조연준 등이었다.

80 『로동신문』, 2019. 2. 17.

“최고지도자와의 거리가 곧 권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북한체제에서 군부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3. 북한군 위상변화의 의미와 영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위상변화가 북한체제에서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역사적 사례로 보면 군의 위상 하락은 핵·미사일 발사시험 동결유지 문제, 핵합의의 준수문제, 공세적 군사훈련문제, 남북군사합의 이행문제, 남북관계 개선 혹은 대남도발 문제, 사회주의 경제건설 역할확대, 탈북자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 집권 이후 군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정은의 정책결정 능력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시기 과거 군 경력 우대나 군 출신 인사들의 당 요직으로 승진 금지 등 ‘탈선군화’ 조치들을 지속하였다. 비록 김정은이 리병철 공군사령관이나 김수길 11군단 정치위원 등 군 출신 인사들을 당의 요직에 임명시켰지만 이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기 군의 위상 하락은 전통적인 당군 관계의 복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1970년대 초의 당을 우선시한 당군 관계처럼 군의 자율성 축소를 가져와 정치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전 시기 북한군의 군사타격 명령 주체는 ‘최고사령부’로 알려졌는데 2020년 6월 8일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보면 군사적 계획의 최종 승인은 당중

양군사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81</sup> 이와 유사하게 2018년 이후 북한군 승진 명령도 최고사령관 명목이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발표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 위상 하락의 의미와 영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군 위상 하락에 따른 김정은의 정책결정 권한 확대이다.

군 위상 하락은 군부의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책결정 능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인 북한군 위상 하락이 2018년 이래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고 비핵화 협상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군의 위상 하락은 현재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 권한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문제 혹은 개혁개방문제 등이 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여지를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과거 남북정상간 대화 혹은 대남 언론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반해 국방위원회의 군 인사들을 중심으로 남북 군사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례가 알려져 있듯이<sup>82</sup> 군부의 위상 하락은 군이 김정은의 북미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의 군통제 강화로 인해 김정은의 정책결정 의지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의 위상 하락은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 확대에 영향

을 미쳐 향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지연, 남북관계 개선거부, 군사합의서 이행훼손, 대남무력도발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결정과 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군의 위상 하락과 대내 통치 안정간의 관련성이다.

군의 위상 하락은 ‘탈선군화’ 조치들의 지속적 시행, 선군용어 퇴출의 가속화, 인민경제생활이나 경제건설 부문에서 과거와 같이 군의 개입이 축소됨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하고 탈북자의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up>83</sup>

군의 위상이 높았던 선군정치 시기의 군우대조치의 폐지나 금지는 군의 위상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선군화’ 조치들이 지속 확산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총참모장이 당중앙위 정치국 정위원 등으로 진출하는 군의 위상강화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선군정치 시기 군이 가졌던 정치, 경제, 사회적 우대조치들은 점차 약화되거나 금지될 것이다. 예컨대, 제대 후 취업에 있어 군 경력이나 군 출신자에 대한 우대 조치의 폐지, 군부인사의 당보직 임명 금지, 군부인사의 당정치국 위원진입이나 국가행사시 주석단내 참여비율이 축소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가전략노선과 관련하여 군부인사의 발언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며, 남북간 군사합의 준수와 이행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안정 및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당과 민간 영역에서 합의준수와 이행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져 군의 문제제기의 여지는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81 “총참모부 대변인담화,” 『로동신문』, 2020. 6. 8.

82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Books, 2008), p.131, p.466;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2013. 6. 26.

83 김정은 시대 ‘탈선군화’ 조치들은 정치적 측면보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군의 전문성 강화”와 그에 따른 “정치참여 축소”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세째, 군의 위상 하락과 남북관계 진전과의 관계이다.<sup>84</sup>

군의 위상 하락은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군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의미함으로써 군 주도하에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한 기합의 이행거부를 어렵게 만든다.

지난 시기 군사기관의 직접적인 공식 발표에 따른 대남 비난이나 대남 군사위협 증가는 한국군의 대응수준을 높여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sup>85</sup> 반면 ‘메아리’, ‘오늘의 조선’, ‘통일조선’이나 ‘우리민족끼리’ 등 비 군사기관이자 대남선전매체에 의한 비난이나 위협은 상대적으로 군사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위협보다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비 군사기관에 의한 대남 위협은 군사적 의도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메시지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발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에서 차지하는 군 위상의 약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의 위상 하락이 군사문제에 대해 군사기관들의 직접적인 공개발표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남북 군사적 긴장에 대한 완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84 고재홍, 『북한의 군축제외와 군부위상의 변화-정량적 접근』, pp.43-96 참조. 북한군부의 위상 변화와 남북관계 변화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북한 군부의 위상 변화와 남북관계 변화와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85 지난 2011년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대남 특별 군사공격작전 위협시 한국군은 대북대응 수준인 데프콘 3을 발령하였다.

## IV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무력 : 5대 비대칭전력 강화

1. 북한군 무력변화와 특징
2. 북한군 무력의 변화상
3. 북한군 무력변화의 의미와 영향

### 1. 북한군 무력변화와 특징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군은 무력 부문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그 변화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2012년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군 무력 부문에서의 변화는 ▲ 핵 ▲ 미사일 ▲ 잠수함 ▲ 방사포 ▲ 특수부대 등 5가지 대남 비대칭전력 강화로 나타났다.<sup>86</sup>

이들 무력 부문 변화의 특징은 첫째, 핵탄두를 비롯, 전략적 투발수단 중심의 전략핵 무력건설에 집중했다는 점이며 둘째, 대남 비대칭 재래식 전력 중심의 집중개발이라는 점이고 셋째, 특수작전병, 신형방사포병, 자주포병 등 소수의 제한된 정예부대 중심의 변환이라는 점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력(military power)이란 다양한 정치·군사적 의미를 갖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으로 기술되어 있다.<sup>87</sup> 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오스굿(Osgood)이 정의한대로 군사력(military power)이란 “물리력을 포함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sup>88</sup> 크노르(Knorr)의 경우도 군사력을 현존 군사력과 잠재 군사력으로

86 ‘비대칭 전력’이란 상대방이 보유하지 않아 비교우위에 있는 전력으로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잠수함과 특수전 요원, 재래식 증강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합동참모본부 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3), p.200, 참조.

87 Ibid., p.72.

88 Robert Osgood and Robert W. Tucker, *Force, Order and Justi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로 구분하고 ‘군사능력’이란 전투현장에서 군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인 현존 군사력을 의미하며, ‘잠재능력’이란 경제력을 비롯해 전쟁목적의 군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sup>89</sup>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력을 ‘군사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듯 ‘군사력’이란 특정 국가나 집단이 원하는 것을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리력이며 반대로 원하는 것을 강제로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군사력은 군사적 의미의 ‘무력’과 차이를 갖는다.

북한은 사전적 의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역량 중의 하나”로 군사력을 이해하고 있다.<sup>90</sup> 전쟁을 수행하는 역량으로서 북한 군사력은 유형 군사력과 무형 군사력으로 구분하고, 유형 군사력은 병력, 군사장비 및 기재, 군사비 등으로, 무형 군사력은 군사전략, 작전전술, 지휘관능력, 병사의 사기와 기술수준, 전시동원능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91</sup>

반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본다면 군사력은 정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북한군의 군사력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sup>92</sup> 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단순히 외부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위하는 국가의 물리력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목표인 한반도통일을 달성하는 물리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sup>93</sup>

본 연구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력의 변화는 군사능력의 변화를 의미하며 북한군의 군사력은 병력과 무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력 규모 문제와 관련 한 연구에 따르면 70여만 명 수준으로 주장되었다.<sup>94</sup> 그러나 북한군의 병력규모는 북한 스스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병력규모를 연구하여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군사력의 변화는 병력이나 군사비 등을 제외하고 북한이 공개한 군사기재와 장비를 의미하는 ‘무장력’의 변화로 한정하고자 한다.

## 2. 북한군 무력의 변화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 무력의 변화는 비 재래식 전력과 재래식 전력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 재래식 전력 부문에서는 소형화·다중화·경량화된 핵탄두 개발과 핵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하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탄두탑재가 가능한 다종다양의 사거리를 지닌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2014년 6월 11일 육·해·공별 신형 함대함미사일, 2013년 2월 24

1967), p.3.

89 Klaus Knorr, *The war potential of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6), pp.19-48.

90 과학원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p.40.

91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59.

92 「당 규약 (1961. 9. 18)」

93 「당 규약 (2016. 5. 10)」

94 정영철, “신화와 현실: 북한 정규군 ‘100만’ 신화 비판,”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1호 (2016 여름), (서울: 북한연구학회, 2016), pp.117-151.

일 함대공미사일, 2013년 4월 7일의 지대공미사일, 이후 다종의 신형 전술유도탄 등 군종별 전술유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재래식 전력개발은 다종의 방사포로서 2013년 5월 18일 신형 300mm방사포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라고 할 수 있는 신형전술유도무기, 600mm 구경의 4연장 발사관의 초대형 방사포와 400mm 6연장 발사관의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건조 중인 3천 톤급 잠수함 및 특수전부대의 장비개선 등을 추진 해왔다.

특히, 핵과 ICBM, IRBM, SLBM을 비롯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과 신형방사포 등이 대남 비대칭 전력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비 재래식 전력 중 전략핵무력 증강에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전략핵무력은 핵탄두와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의미한다. 2017년 북한이 보여준 화성12형(IRBM)과 화성14형, 화성 15형(ICBM)의 시험발사는 전시 미국 증원군의 한반도 유입을 차단시킴으로서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저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2013년 3월 북한은 국가전략노선으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결정하고 2017년 11월 약 5년 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국가 핵무력 건설의 내용은 2012년 이후 4회 핵실험의 실시, 세 가지 종류의 ICBM을 포함해 SLBM, IRBM 등 다종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고, 근 60여회의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핵무력 건설은 과거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에 있어 투발수단의 시험 횟수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2017년 12월까지의 약 5년 동안과 1984년 4월 이래 김일성 시기의 10년 동안 행한 12회(19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1994년 7월 이후 김정일 시기의 17년 기간 행한 7회(16발) 등과 비교해 볼 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거의 2배에 달할 정도이다.<sup>95</sup>

핵과 관련해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후 북한은 핵의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투발수단인 ICBM을 비롯해 다종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들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종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의 종류로는 첫째, 기존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한 신형 스커드 개량형(SCUD-ER) 둘째, 기 보유 노동미사일 셋째,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미사일 넷째, 북극성1호의 지상용 버전인 북극성 2호 미사일 다섯째,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 여섯째, 그 외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시험발사를 2018년에 행한 바 있었다.

ICBM과 관련해서는 북한식 명칭인 화성14형, 화성15형 등 2종류의 미사일과 아직 시험발사하지 않은 화성13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SLBM 개발에 주력하여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 1형이 바지선발사시험에 성공한 이후 연이어 1500톤급 배수량의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시험이 이루어졌으며 북극성 3호 역시 2019년 원산 해상에서 바지선에 의한 사출시험이 행해졌다. 동시에 2019년 11월 거의 건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3,000톤급의 잠수함에 대한 김정은 참관을 공개함으로써 북극성 3호의 시험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종다양한 단거리 미사일 개량과 신형 방사포의 개발을 추진해

95 김항록,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고도화와 대미 역강압전략연구- 핵투발수단을 중심으로」, p.3.

왔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생산하고 1990년대 초반 노동미사일 발사시험 등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온 바, 김정은 집권이후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개발에 주력해 왔다. 2004년 사거리 120여 km의 '독사' 미사일(한국 표기명: KN-2) 발사시험을 시작으로 2015년에 전술용유도탄시험, 2016년에는 300mm 방사포, 2017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과 2019년 8월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라 할 수 있는 다연장 탄도미사일급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하였다. 동년 8월 24일 600mm 구경의 4연장 초대형방사포와 8월 2일 6연장발사관의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실험을 거듭하였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로켓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GPS 위성추적장치를 발사탄두에 장착함으로써 목표 지점에 대한 타격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사속도 단축과 연속 발사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타격력과 공격력을 증대시킨 군사력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96</sup>

셋째, 재래식 전력 중 대남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특수부대, 기타 전력의 확충과 개량에 주력하였다.

재래식 전력으로서 2019년 11월 3천 톤급 잠수함의 건조는 잠항 시간의 연장과 작전 반경 확대라는 군사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SLBM 발사와 결합되는 경우 전략적 무기 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sup>97</sup> 단순

히 재래식 전력의 강화 차원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공개한 SLBM의 사거리 500km 작전반경을 넘는 사거리 확장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발력 확장을 위해 핵탄두와 결합시키기 위해 SLBM의 시험발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특수부대 장비의 개선과 확충이 이루어졌다.<sup>98</sup>

지난 2017년 4월 열병식에서의 열병종대 중 특이점은 전통적인 육·해·공 열병종대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특수부대의 열병종대들은 과거와 다른 신형 장비 확충과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특수부대들이 제5군종인 '특수작전군'으로 새로운 독립군종이 된 시혜 조치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남 비대칭 전력으로 특수부대가 갖는 위협은 잠수함과 함께 재래식 전력 중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북한군 무력변화의 의미와 영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재래식과 비 재래식 군사력의 증대 의미는 대내외 측면에서 큰 의미와 영향을 갖는다.

대내 차원에서 군사력의 증대는 새로 집권한 김정은 정권의 업적 과시와 김정은의 장기집권의 바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편중된 핵미사일 개발 등 비 재래식 전력 확대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96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2019년 8월호 참조; 『로동신문』, 2019. 8. 24.

97 현재 건조 중인 3,000톤급 잠수함이 SLBM 발사능력을 보유할 경우 한미연합군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 능력뿐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공격이 가능한 대응 무기체계가 됨으로써 전략적 무기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98 특수부대의 목표, 규모, 능력과 관련한 전체적인 설명은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n Special Forces* (U.S.A: Naval Institute Press, 1998), 참조.

위축을 가져와 전력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 재래식부대 축소와 관련, 2000년 전후 북한이 보유한 20여 개 군단급 부대는 2014년 말 정규 전·후방 군단 10개, 기계화훈련소 2개, 평양방어사령부 1개, 11군단, 전략군사령부 등 15개 군단급 부대로 축소되었다. 군단급 기계화훈련소를 사단급으로 전환하고 사단급 부대 수를 줄이고 여단급 부대를 확충하는 방향이었다. 2018년 말에는 군단급 부대가 17개로 수준을 유지하고 사단급 부대는 88개에서 81개로 축소하였다. 대신 예비사단을 줄이고 산악보병여단과 기계화보병여단 등 기동여단을 증가시키는 조직적 효율화를 추구하였다.<sup>99</sup>

대외 차원에서 북한은 2017년 말까지 전략핵·미사일(ICBM) 개발에 집중한 이래 2018년 이후 핵보유를 정치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협상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sup>100</sup> 2018년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 북한 무력의 변화는 남북한의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거울영상 효과를 보이고 있다. ICBM을 비롯한 국가 핵무력 건설에 이어 단거리미사일 개발, 방사포, 잠수함, 특수군 등 지속적으로 대남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국가 핵무력 건설노선의 가장 큰 영향은 국가 핵무력 건설에 대한 집중이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과 비 재래식 전력간의 상대적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북한군 군종별 상대적 박탈감을 유

발했다는데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재래식 무기와 비 재래식 무기의 시험발사 횟수를 비교하면 비재래식 무기분야가 3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다.<sup>101</sup>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6년 동안 비율적으로 북한군 구성 중 규모가 작은 비 재래식 무기 분야에 모든 국가적 힘을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은 과거처럼 준전시상태 선포 혹은 대응 군사훈련 실시가 아닌 미사일 시험발사 대응방식으로 정례화될 정도이다. 실제로 2014년 이후 3월과 4월, 8월, 10월 등 한미연합군과 한국군의 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응군사훈련의 실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다종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다.<sup>102</sup>

한국군의 방어 군사능력의 증대를 고려할 경우 북한의 비 재래식 전력과 재래식 전력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될수록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경우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주의 대남 군사위협은 더 이상 위협으로서 효율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칭 전력무기 개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국가 핵무력 건설의 영향 중 또 다른 하나는 북한군내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

99 대한민국 국방부 편, 『국방백서 2014』(서울: 국방부, 2014), p.239; 대한민국 국방부 편, 『국방백서 2018』(서울: 국방부, 2018), p.244.

100 박형중, “두정상간 개인적 신뢰형성, 긴장완화게임 진입: 미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북한』 통권 559호, 2018년 7월호(서울: 북한연구소, 2018), pp.30-33.

101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미 역강압전략연구-핵투발수단을 중심으로,” pp.245-249.

102 한호석은 로켓은 대당 2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주시보』, 2015. 10. 23.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sup>103</sup>고 선전하지만 핵무력이 있다할지라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던 대병력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유지, 보수, 개량, 증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래식 부대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 항공부대의 입장에서 필요한 우선순위 중 전략군 중심의 핵무력 건설이 반드시 첫 번째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군을 유지하기 위해 비행사를 포함한 공군 복무요원의 훈련과 교육, 복지, 항공기의 정비점검, 부품공급, 성능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첨단항공기의 도입, 공대지 등 각종 첨단 미사일의 도입 등 공군전투력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sup>104</sup>

따라서 전략군 중심의 국가 핵무력 건설의 영향은 오히려 북한공군의 존재감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보여진 ‘공군사랑’은<sup>105</sup> 비행조종사들을 처음으로 노동당사에 초청하여 사진촬영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북제재 하에서도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비행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2019년 11월에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0월 30일 경 오랫동안 변함없었던 MIG-29기에 대한 외부 도색 변경이 확인되었으며<sup>106</sup>

103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전략적 노선,” 『로동신문』, 2014. 8. 28.

104 2015년 1월 24일 김정은의 제1항공 및 반항공부대 방문시 공군조종사들이 모형비행기를 가지고 비행시뮬레이션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북한공군은 장난감으로 훈련?,” 『YTN』, 2015. 1. 28, [https://ytn.co.kr/\\_ln/0101\\_201501281602043337](https://ytn.co.kr/_ln/0101_201501281602043337) (검색일: 2020. 9. 27).

105 김정은 집권 초기 ‘공군사랑’은 신년 첫 시찰 부대로 공군을 선택하거나 공군부대 시찰 횟수가 많다.

106 『로동신문』, 2014. 10. 30, 전투 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 지도시 MIG-29기 사진과 달리 2008년 12월 27일 공군 제1071부대와 323군부대 방문시의 MIG-29기 사진과 2014년 5월 10일의 1차 비행술경기대회시 사진에서는 MIG-29기의 외부 도색이 변하지 않았다.

공군조종사에 대해 연중 2회 휴가허용, 결혼가정에 TV 선물 등의 시혜 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sup>107</sup> 이와 같이 김정은 집권 초기 공군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과 시찰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비행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위로 차원<sup>108</sup>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점은 해군에게도 전통적인 지상 보병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국가보위나 최고사령관의 결사옹위에 대한 책임이 공군과 해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군이 가지게 됨으로써<sup>109</sup> 재래식 전력중심의 지상군과 해·공군은 보유 무력의 존재에 대한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2017년 말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 100만 병력을 가진 재래식 중심의 북한군의 핵무력이 되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과 결합될 수 있는 전술핵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무력건설의 방향은 전략핵에 대한 정치적 인정 추구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비대칭 재래식 전력강화를 추구하는 군력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7 자유북한방송, “북한 김정은 왜 공군에 집착하나,” 2015. 2. 3, 「패션, 역사, 군사의 아침안개 블로그」 <https://citrain64.blog.me/220262040481> (검색일: 2020. 8. 1).

108 북한에서도 언급한 2009년 광명성 2호와 2012년 3호 발사시 각각 함남 덕성비행장의 공군 제447부대와 평남 순천비행장의 공군 제1071부대의 비행사들이 정찰비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이에 대한 위로 차원이 김정은의 빈번한 시찰 방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2009년 장거리로켓 발사 때 조종사 사망확인,” 『연합뉴스』, 2015. 3. 3.

109 2016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바, 김정일이 1999년 7월 3일 ‘전략군’ 창설을 지시한 날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6. 6. 25.

## V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간부 : 간부통제와 세대교체

1. 북한군 간부변화와 특징
2. 북한군 간부의 변화상
3. 북한군 간부변화의 의미와 영향

### 1. 북한군 간부변화와 특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 간부 부문에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어 왔다. 북한군 최고위급 인사의 빈번한 교체는 물론이고 당 군사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군사위의 위원들도 개최 시마다 바뀌었으며 북한군의 사령부 및 군단급 군사지휘관들도 빈번히 전면 교체되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최고위급 간부 및 주요 군 간부 부문에서 보여진 다양한 형태의 변화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군 주요 간부교체는 군내 주도세력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전인 ‘선군정치’ 시기 북한군의 주도세력은 노동당의 군사담당 간부로부터 북한군의 지역 군단과 사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군 출신의 당 간부였으며 군사지휘관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10</sup>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주도세력은 당 출신 군 간부들과 정치지휘관들로 변모되었다.

둘째, 북한군의 주요 간부변화는 빈번한 간부 교체와 전면적 세대교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북한군을 대표하는 인민무력부장(2016년 7월 이후 인민무력상으로 명칭변경)은 7번, 총정치국장은 4번<sup>111</sup>, 총참모장은 7번, 작전총국장 7번, 해군사령관은 4

110 선군정치 시기 군사사항에 대해 각급 부대내 군사지휘관과 정치위원이 의견을 달리하여 충돌할 경우, 군사지휘관은 ‘전투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치위원을 종속시킬 수 있었다.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 연구』, pp.111-117.

111 김정은 등장 이후 총정치국장 교체와 관련, 조명록(1995~2010)-최룡해(2012. 4)-황병서(2014. 4)-김정각(2018. 2)-김수길(2018. 6) 등이다.

변, 항공반항공사령관 4번을 비롯하여 일선 군단장급 군사지휘관들도 수시로 교체되었다. 주요 간부 변화에는 자연 교체 이외에 경질, 해임, 숙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체 방향과 범위는 상대적으로 젊고 새로운 인사들의 충원을 넘어 군의 전통과 서열을 파괴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셋째, 북한군 간부계급의 강등과 복권의 반복 현상을 특징으로 하였다.<sup>112</sup>

북한군 간부에 대한 계급 강등과 복권 현상은 김정은 집권 시기만의 특이현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계급 강등, 강직 등은 일종의 군 기율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113</sup>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군 간부들에 대한 강등과 복권 조치들이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북한군 간부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와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과 관련해 공개성이 증대되었다. 군 고위 인사의 인물사진과 프로필이 『노동신문』 등에 공개되는가 하면 열병식이 2018년까지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실과 각종 신무기 실험 등이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2017년 4월 열병식부터 북한군 부대의 책임간부들 이름과 부대 대호, 부대 특징 등이 공개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간부’의 정의와 관련, 북한에서 ‘간부’는 서구에서 사용하는 ‘엘리트(elite)’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서구의 ‘엘리트(elite)’는 일반 대중과 구별되는 비교적 소수의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조직을 이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114</sup> 북한에서 ‘간부’의 의미는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꾼, 당의 골간 역량이며 정책을 조직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15</sup>

이를 ‘북한군 간부’에 적용할 경우 북한군과 관련해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sup>116</sup> 그런 의미에서 북한군 주요 간부라고 할 경우 현장 자위권 발동의 권한을 가진 연대급(상좌~대좌) 이상의 고급군관들이 북한군의 주요 간부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대급 지휘관으로 간부 범위를 설정할 경우 간부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개별 간부의 특징이나 공통된 성격을 찾는 데 한계를 갖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 ‘간부’의 범위를 소수의 북한군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북한군의 주요 간부의 범위는 우선 북한의 중요 정치군사적 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당중앙위 정치국 정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 후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시 참여하는 장성급 인사들 약 90~100여 명이 북한군의 주요 간부들이라고 할 수 있

112 김태구, “김정은 체제의 당군관계 변화: 군부변화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38집 1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3), p.31.

113 정보사령부 편, 『북한편람』 (서울: 정보사령부, 2000), p.648.

114 이교덕 외, 『북한 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15-20. 대표적으로 밀즈(Wright c.mills)는 권력엘리트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15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64.

116 군 간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군 인사 집단을 의미하는 ‘군부’와 구별된다.

을 것이다.<sup>117</sup>

북한군 간부들의 직책을 기준으로 주요 간부들의 범위를 기술하면 김정은 최고사령관 겸 당중앙군사위원회장을 비롯하여 당중앙군사위 위원들, 당중앙위의 조직지도부, 군사부, 군수공업부 등 군 관련 부서담당 부부장급 이상을 위시하여 총정치국 부국장급 이상, 최고사령부 부장급 이상, 총참모부 작전총국장 및 부총참모장급 이상, 무력성 부상급 이상, 육·해·공군, 전략군, 특수군, 보위국, 호위국 등 사령부급과 군단급 정치군사책임지휘관들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북한군 주요 간부들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고유한 간부 임명권에 의해 임명된 자들로 김정은 정권의 군내 주도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군 간부의 변화상

### 가. 북한군 주도세력의 변화

김정은 집권 이후 군 간부의 변화는 곧 군부 주도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선군 시기 군 간부들이 새로운 군 간부들로 대체 되었다는 것 이외에 북한군내 주도세력의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17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참가자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와 군사부 당 부부장 이상 급들과 북한군 군종 및 군단급 지휘부의 책임지휘관들이 참여한다.

김정은 집권 초기 군의 요직은 내부승진이 아닌 당관료 출신들이 장악하고 군사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 당 관료들이 참여함으로써 당의 군 통제 성격을 강화시켰다. 북한군의 모든 정치군사 활동이 당의 통제와 지시를 받게 됨으로써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군의 주도세력은 당출신 인사들과 정치지휘관들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당으로 부터 독립적인 군의 자율성 확대를 차단하고, 김정은의 군 부장악과 북한군을 당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초 김정일 후계 시기에 보여졌던 현상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sup>118</sup>

2011년 12월 김정일의 영구차를 수행했던 선군정치 시기의 핵심 인사인 7인<sup>119</sup> 중 2020년 현재 김정은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하거나 일선 후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들어와 한 해 동안 김정은의 공개 활동 중 20회 이상을 수행했던 15명의 주요 간부들은 자연적 사망과 경질, 숙청 등으로 오늘날 최룡해 정도만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수행했던 주요 간부 21명 중 현재 남아 있는 간부들은 4명 정도에 불과하다.<sup>120</sup> 불과 6~7년 뒤인 2018년~2019년 김정은의 공개활동시 수행하는 당과군 간부들을 비교하면 자연적 결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이 신진인사로 교체되거나 당 관료출신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1</sup>

118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연구-견제와 균형의 지속』, pp.93-110.

119 7인은 김정은을 비롯하여 우동축, 리영호, 김기남, 장성택, 김영춘, 김정각이다.

120 김진무, “김정은 정권엘리트 변화분석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편, 『주간북한논단』, 제1584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5), pp.1-3.

121 2019년 북한 금수산궁전 참배시, 각종 신무기 시험시, 잠수함 참관시 수행인원은 대부분 당 간부들이며 군 간부

과거 김정일 시기 북한군 주요 요직은 군 내부 승진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선군정치’ 현상의 하나는 당 관료들의 군 요직 임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당 전문부서의 실무 간부들은 오히려 군 출신들로 임명되었다. 또한 군사 부문의 요직은 평양 인근의 군단간부와 전방군단 출신 간부들이 독차지했다. 상대적으로 후방군단 출신이나 교육·군수 등 비전투부서의 지휘관이나 당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정치지휘관들은 계급적으로 한 단계 아래였고 김정일의 수행측근에서도 멀리 벗어나 있었다.<sup>122</sup>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처럼 군 내부 출신의 승진은 제한되었으며 설사 내부 승진의 경우도 전통적인 서열경로를 무시한 파격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군 복무경험이 없는 최룡해를 비롯해서 황병서, 박영식 등 당 관료들을 북한군 요직으로 이동시켰다. 비록 신상필벌과 성과주의적 측면이 내포되었겠지만 김정일 시기 후방군단장과 비정규 부서에 있었던 현영철, 최부일, 박수일, 립광일, 노광철 등이 김정은 집권 이후 군의 총참모장과 작전국장 등 요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군단장을 거치지 않은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의 총참모장 임명이 대표적이다. 박정천 총참모장은 2006년 4월 14일 처음으로 소장계급을 단 후 불과 13년 만인 2019년 4월 14일 3계급 상승한 북한군 대장으로 승진하고 2020년 5월에는 ‘차수’, 2020년 10월에는 ‘원수’로 고속 승진하였다.<sup>123</sup> 이러한 초고속 승진은 김정은 집권 이후 박정천

들은 ‘현지영접’ 인원이었다.

122 고재홍,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연구』, pp.146-170.

123 “(검색)북한인물,” 『모바일뉴스리더』 (검색일: 2020. 8. 30).

총참모장의 경우만이 아니다. 김정은이 2012년 2월 7일 해군사령부 방문시 영접했던 동해함대사령관 김명식 소장도 동년 2월 15일자로 중장으로 승진한 이래 불과 7년 만인 2019년 4월 ‘대장’으로 승진했다. 함께 대장으로 승진한 항공군사령관인 김광혁의 경우도 지난 2012년 8월 2일 엄석철 소속 비행부대의 상급책임지휘관으로 이름이 『노동신문』에 처음 공개된 이후 2016년 12월 상장 진급과 함께 항공군사령관에 임명되었고 2019년 4월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14일 김정은의 2번째 단독 군 승진 명령에 의해 ‘소장’으로 승진한 70명 중 방두섭과 김명남만이<sup>124</sup> 2017년 4월 불과 5년 만에 2단계 승진한 상장이 되었고 북한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2군단장과 평양방어사령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김영복 특수작전군사령관, 립광일 정찰총국장, 위성일 제1부총참모장 등 북한군내 소수의 군사간부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 오늘 날까지 변함없이 지속 성장한 인물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 나. 북한군 주요 간부의 빈번한 교체와 세대교체

김정은 집권 이후 군 간부 변화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전례 없는 주요 간부들의 빈번한 교체에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을 대표하는 인민무력부장(인민무력상), 총참모장, 작전국장 등의 재임 기간은 빈번한 교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다.

124 『노동신문』, 2012. 4. 14.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약 8년 동안 북한군 군총참모장은 7명이 교체되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총참모장 교체와 관련, 리영호(2009.2)-현영철(2012.7)-김격식(2012.12)-리영길(2013.8)-리명수(2015.2)-리영길(2018.11)-박정천(2019.8)이다.

북한군 인민무력부장(인민무력상)은 7명이 교체되었다. 김정각(2012.4)-김격식(2012.12)-장정남(2013.5)-현영철(2014.5)-박영식(2015.9)-노광철(2018.5)-김정관(2019.12) 등이다.

북한군 작전국장의 경우도 7명에 달할 정도이다. 최부일(2012.4)-리영길(2013.3)-변인선(2013.8)-김춘삼(2014.11)-리영길(2016.10)-박수일(2018.6)-현재 미확인 상태이다.

이들 북한군 주요 간부들의 재임기간은 평균 12개월 남짓 정도에 불과하며 짧은 재임기간에는 자연 교체를 비롯 숙청과 해임, 경질을 포함하고 있다.<sup>125</sup>

2012년 7월 숙청된 리영호 총참모장의 후임인 현영철은 5개월 뒤 경질되어 제5군단장으로 좌천되었다가 1년 만인 2014년 5월 인민무력부장으로 복귀하였고 11개월 뒤인 2015년 4월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말 리영길의 총참모장 승진으로 작전국장이 된 변인선은 2015년 초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26</sup>

2013년 3월 작전국장에 보임된 리영길은 6개월 후인 2013년 9월 총참모장 임명되었고 2년 5개월 후인 2016년 2월 경질되어 5군단 산하

125 고재홍, “비정규군간부 특세하는 김정은 정권,” 『북한』, 2016년 4월호, pp.64-69;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연구』, p.161.

126 조선일보사 편, 『월간조선』, 2015년 7월호. 변인선은 명령불복으로 2015년 초 숙청당한 것으로 알렸으며 후임에 김춘삼 평방사령관이 작전국장이 되었다.

사단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9개월 뒤인 2016년 11월에 다시 작전총국장(전임 림광일, 후임 박수일)에 임명, 1년 7개월 만인 2018년 6월 총참모장에 재임명되었다가 1년 뒤인 2019년 9월 경질되었다. 북한군 총참모장을 2번씩이나 역임한 리영길은 현재 당 전문부서의 책임부장이 아닌 당 제1부부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27</sup>

군 주요 간부교체와 더불어 북한의 주요 군사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군사위 위원의 변화도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남짓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시마다 당중앙군사위 위원들의 소환과 보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북한군의 사령부 및 군단급 지휘관의 교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8년 동안 해군사령관 및 공군사령관이 각각 4명이 교체되었고 북한군 군단장급도 2012년 총참모장 리영호 숙청 후 2013년 초, 장성택 처형 후 2014년 초중반, 2015년 8월 목함지뢰도발 후 2015년 말과 2016년 초, 2018년 중반, 2019년 중반에 사령부 및 군단장급 지휘관들이 1~2년을 사이에 두고 3번 이상 교체가 진행되기도 하였다.<sup>128</sup> 예를 들어 2012년 7월 현재 북한군의 핵심인 제2군단은 2016년 중반까지 김형룡 - 양동훈(?) - 김상룡 - 방두섭 군단장으로 교체되었다. 1군단장도 리춘일 - 장정남 - 위성일 - 노광철로, 5군단의 경우는 리영길 - 현영철 - 장정남 - 양동훈으로, 함북지역의 9군단의 경우도 림상돈 - 김성일 - 김상룡 등으로 교체되었다.

127 “(검색)북한인물,” 『모바일뉴스리더』 (검색일: 2020. 8. 30).

128 고재홍, 『북한의 군통제연구』, pp.163-165.

반면 김정은 집권 기간에 북한군 주요 간부 중 상대적으로 교체 빈도가 적고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간부도 있었다. 총정치국은 상대적으로 간부교체가 적었다. 총정치국 부국장은 단지 2~3번이 교체되었으며 전략군사령관 김낙겸과 특수작전군 사령관 김영복, 2018년 말에 사망하기까지 리성국 4군단장 등은 2013년 이후 교체되지 않고 직책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시기 간부 변화현상이 대부분 군사지휘관의 교체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지휘관에 대한 정치적 인사평가가 총정치국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당과 총정치국이 군사지휘관들의 숙청과 해임, 빈번한 교체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 3. 북한군 간부변화의 의미와 영향

김정은 집권 이후 보여진 북한군 주요 간부의 변화과정은 2020년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한 의미와 영향을 가진다.

북한군 간부변화 과정은 2012년 김정은 집권당시 김정은의 군부장악이 시작단계였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군 간부변화는 당의 군 통제를 확립하려는 당과 총정치국 그리고 젊고 신진인사로 군사지휘관 교체를 희망하는 김정은과의 타협의 산물로 나타났다. 그런 이유로 북한군 간부교체는 군사지휘관 교체를 중심으로 수직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빈번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북한군 사령부 및 군단급 군사지휘관의 빈번한 교체는 고위 군사지휘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의 부족을 가져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실전 군사훈

련과 집단적 협동군사훈련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가. 북한군 주도세력의 성격변화

북한군 주도세력의 변화는 지도자의 교체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지향하는 군부장악이 최소한 2012년 집권 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 이후 오늘 날까지 변함없이 군 직책을 지켜왔던 간부들은 전략군사령관, 특수작전군사령관, 제4군단장(2018년 10월 사망)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당시 김정은의 군부장악이 시작단계였음을 의미한다. 2019년의 5대 군종 사령관들과 현재의 주요 군단장들이 2013년 전후 김정은에 의해 중장과 소장으로 진급한 인물들 중에서 지속 승진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집권 시기 보였던 빈번한 군 간부교체 현상은 김정은의 ‘군부형성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군 주도세력들의 형성과 성격 변화가 이루어진 과정은 2012년 4월과 2019년 4월 개최된 당중앙군사위 위원구성의 비교에서 잘 나타나 있다.

2012년 당중앙군사위 위원의 면면은 군 출신 간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19년 4월 당중앙군사위 위원구성은 비 군사 부문 엘리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2012년 당시 당중앙군사위 위원은 총 17명에서 2017년 9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호위국장, 보위국장,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특수군사령관, 전략군사령관, 노동적위군사령관 등 군사지휘관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대신 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하여, 리만

건 당조직지도부장, 태종수 당군수공업부장, 김조국 당조직지도부군사담당 제1부부장이 보선되었고 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인 리명수도 소환되었다. 즉 당중앙군사위 위원구성이 전반적으로 비군사 부문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의 군사사업이 당과 민간사업의 견제 하에 놓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29</sup>

선군정치 시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무조건 민간사업 부문이 이행해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민간 부문의 대군 견제구도를 형성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해 온 인민무력부장 인사에 있어 그동안 군단장 출신의 정통적인 군사지휘관출신들을 임명해 온 관례에서 벗어나 2018년 이후 당조직지도부 과장출신으로 평방사령부 정치위원과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지낸 박영식, 제2경제위원회의 노광철, 무력성 부상인 김정관 등 비 군사지휘관 출신을 인민무력상으로 임명한 데는 군사지휘관들이 더이상 북한군의 주도세력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 나타난 변화는 김정은 집권 시기 8년 동안 개최된 8회의 열병식 중 북한군 창설일에 개최된 열병식이 단 1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과거 1992년 이후 근 18년 기간 동안 11회의 열병식 중 4회가 군 창설일 기념 열병식임을 고려할 때 김정은 집권 시기는 당창건 1회, 김일성 생일 2회, 정전협정체결일 2회, 정부수립일 2회 등을 기념하기 위해 열병식을 개최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서 매년 개최하는 각종 ‘대회’ 중 군사 부문이 주도하는 ‘군사대회’ 개최도 감소하였다. 또한 북한

군 주도세력의 변화가 2018년 9월의 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남북군사합의서의 도출은 남북 쌍방의 지도자의 의지뿐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군 주도세력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0년대 초 김정일 정권 시기 북한군 주도세력들이 남북군사관계의 개선에 반대해왔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남북군사합의서 도출은 김정은 체제의 군 주도세력들의 성격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면 북한군 주도세력이 군사지휘관 중심으로 바뀌는 징후가 없는 한 혹은 김정은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남북군사합의는 유지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 나. 북한군 주요 간부와 세대교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 주요 간부교체는 수평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짧은 기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면적 세대교체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북한군 간부의 수직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30세 남짓의 젊은 후계자의 부상에 기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계기는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기간이 김정은의 군부장악을 보여준 기간이라기보다는 친 김정은 성향의 군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변함없이 군 직책을 지켜온 간부들이 전략군사령관, 특수작전군사령관, 제4군단장(2018년 10월 사망) 등 소수임을

129 통일부 편, 「북한권력기구표」, 각 연호 참조.

고려하면 2012년 당시 김정은의 군부장약은 시작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9년에 와서 북한의 5대 군종 사령관들과 주요 군단장들이 2013년 전후 김정은에 의해 중장과 소장으로 진급한 인물들으로써 김정은 집권 시기 지속적으로 승진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의 집권 시기 군 간부 변화는 친 김정은의 군부형성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친 김정은의 군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군 경험이 없는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이후 황병서 총정치국, 박영식 인민무력부장(후에 인민무력상) 등 당 출신 간부들이 북한군 간부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이후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등 주요 간부가 교체되고 숙청당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군 총정치국 간부들의 교체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것이었다.

북한군 주요 간부교체가 군사지휘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지휘관에 대한 정치적 인사평가가 총정치국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총정치국이 군사지휘관들의 숙청과 경질, 빈번한 교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군 최고위급 군사지휘관 간부의 빈번한 교체뿐 아니라 일선 군단장급 군사지휘관들 역시 짧은 기간 동안 2~3번 이상의 빈번한 교체가 발생하였다. 2019년 현재 북한군 1군단장은 2015년 10월 열병지휘관인 위성일 중장으로 추정되며, 2020년 9월에 무력상이었던 노광철이 1군단장으로 확인되었다. 북한군 2군단장은 2012년 소장으로 승진한 방두섭으로, 3군단장은 2015년에 '소장'으로 승진한 최두용으로, 제108·815·806·425 등 군단·사단급 이상 규모의 4대 기계화훈련소

군사지휘관<sup>130</sup> 등도 2012년~2015년에 중장과 소장으로 진급한 신진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군단장급 간부 교체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공개적 접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이후 김정은은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낙겸 사령관, 리성국 4군단장 등을 공개활동을 통해 접촉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후 빈번하게 교체되는 군단장급 지휘관은 김정은의 비대면 서류평가에 의한 교체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일선 군단장이 교체임명 된 후에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통한 대면 접촉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sup>131</sup>

이는 김정은이 빈번한 군단장급 교체 인선을 주도했다기보다는 당 조직부와 총정치국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군 간부의 빈번한 교체는 북한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확립코자하는 당세력들과 새로운 젊은 간부들로 교체를 희망하는 김정은과의 타협의 산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군 군단급 간부들의 수직적인 빈번한 교체에 따른 영향이 2014년 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짧은 기간 군단장급 간부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결과 10만 군병력을 관할하는 군단장으로서 자질과 경험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2014년 이후 군단급 부대의 쌍방실기동훈련 실시 등 집단적 협동군사훈련이 증가한 하나의 이유로

130 2018년 초 806훈련소 허성일 중장, 425훈련소의 주성남 중장, 108훈련소의 송영건 중장, 815훈련소의 고명수 중장 등이다.

131 2015년~2016년 사이 김정은은 군단장이 교체된 대연합부대의 쌍방기동훈련을 참관함으로써 그 이전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던 군단장을 대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132</sup>

김정은은 2015년 2월 20일 북한군 제526군부대와 제671군부대간 쌍방실기동훈련을 참관했다. 526군부대는 3군단의 부대대호로 군단장은 2014년 4월에 소장으로 승진한 최두용이다. 즉 최두용은 군단장 승진 후 8개월 만에 김정은과 군단급 부대간 쌍방실동훈련을 실시하였다. 2016년 2월 21일 대연합부대 쌍방실동훈련에 참여했던 815기계화훈련소장인 고명수는 2015년 2월 16일 소장으로 승진하고 1년 만에 군단급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었으며 평방사령관인 김명남 중장은 훈련실시 이후 1년 후인 2017년 4월 상장으로 승진하였다.

또 다른 예로 2015년 초 리병철의 후임으로 항공반항공사령관으로 임명된 최영호 상장은 6개월 뒤인 2015년 7월 김정은이 참관하는 비행술 경기대회를 주관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군의 집단적인 협동군사훈련은 2014년 이후 급증하였는데 2012년과 2013년 각각 1회와 3회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9회, 2015년 8회, 2016년 10회, 2017년 5회 등 급격히 증가하고 2018년을 제외하고 2020년 상반기에만 6회를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신진 세대로의 북한군 군단장의 빈번한 교체로 군단장으로서 경험과 자질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실전 군사훈련과 집단적 협동훈련이 급격히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북한군 간부 교체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경우 감소 혹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132 고재홍, “(근간)김정은 집권 이후 군 관련 공개활동의 특징과 전망,” INSS 전략보고 시리즈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VI

## 북한군의 변화전망

1. 위상변화의 전망: 김정은의 정책결정권 강화
2. 무력변화의 전망: 전술핵 개발가능성과 재래무기의 현대화
3. 간부변화의 전망: 장기집권 기반의 세대교체

## 1. 위상변화의 전망: 김정은의 정책결정권 강화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군의 위상 부문에서 하락 현상이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군부의 위상 하락은 김정은 집권 초기 기존의 군부 중심의 비상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장 통치체제를 정상적인 당국가 통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며, 김정은의 권력공고화와 당의 군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이후 군 위상 변화에서는 과거 선군정치 시기 군 위상을 높이는 각종 군 우대조치들을 폐기하는 ‘탈선군화’의 조치를 보이면서 군부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2018년 이후 당정치국 위원 구성과 당중앙군사위 위원구성에 있어 군 출신의 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축소되었고<sup>133</sup> 심지어 북한군 총치국장과 인민무력상, 총참모장을 당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위원에서 일정기간 배제하였다. 북한군의 경제건설 역할이 확대되고, 군부의 이익과 권한이 축소되었으며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활동과 각종 군주도 ‘대회’들도 감소·위축되었다. 6.25나 7.27 같은 다양한 국가기념일의 군사적 공세성과 위협 표현은 약화되었으며 대외 군사문제에 있어 과거와 같은 군사기관이 직접 발표하는 위협적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라 비군사 기관인 대외선전단체의 성명과 담화 등으로 대체되었다. 군부의 공식서열도 ‘무력기관’의 지위로 하락해 국가 주요행사의 상위 배치에서 밀려날 정도였다.

133 『로동신문』, 2019. 4. 12.

2019년에 들어와서는 헌법개정(4.11)을 통해 본문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 등을 선군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김정일식 ‘선군정치’의 종식 의지로 평가될 수 있다.<sup>134</sup> 김정은의 각종 군 관련 공개활동시 수행인원도 군 간부 대신 당 간부들로 채워졌으며 군 간부들은 ‘현지영접’ 위치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의 정치적 종속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위상 하락의 결과는 당의 군 통제 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김정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 능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결정에 있어 군부에 의해 거부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지만<sup>135</sup> 향후 군부의 위상 하락은 더 이상 김정은의 군사적 정책결정에 군부가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군부 위상이 하락하는 대신 당 조직지도부나 군사부 등 당 전문부서와 당 고위간부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증대되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군사적 정책결정에 있어 비군사적 요인들, 예를 들면 대외관계나 대민사업 등이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위상 하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북한군부의 위상 하락을 만회하는 반동도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 군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북한군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한미의 사소한 군사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거나, 군사분계선 상에서 한국군이 먼저 군사공격을 유발토록 하거나, 남북군사합의서를 한국이 먼저 위반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 2. 무력변화의 전망: 전술핵 개발가능성과 재래무기의 현대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무력 부문에서 변화가 이어져 왔다.

북한군 무력의 변화 부문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군력강화 정책에 의해 핵·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재래식 무력 개발에 집중하면서 특히 대남 우위에 있는 비대칭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 이후 핵·ICBM 실험을 동결하는 대신 신형 SLBM 시험을 비롯하여 3,000톤급 잠수함 개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중단거리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시험을 단행하고, 전투력향상을 위한 집단적 군사훈련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북한군의 전반적인 무력의 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대남 비대칭 우위를 갖는 전략군과 특수군의 증강확대는 눈에 띄게 변화하는 반면 전통적인 육군·해·공군의 일반 보병부대, 연안 경비부대, 항공부대들의 상대적인 위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이 매해 개최되는 열병식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북한 열병식에서는 부분적으로 대남 비대칭 우위를 가진 화력 타격무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비 재래식과 재래식 무력사이에 심화되는 불균형을 타개하고 재래식 무기체계의 발전을 위해 향후 지상군 중심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현대화와 전술핵 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갈

134 ‘김정은식 선군정치’는 김정일식 ‘선군정치’ 중 군 우대 조치를 제외한 ‘군력강화’ 부문만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핵·ICBM 발사시험 동결 이후 2019년 들어 다종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과다하게 실시(총 12회)하고 있으며 투력 향상을 위한 집단적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선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김정은식 선군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5 대표적으로 2000년 8월 남한의 방북 언론대표단과 김정일의 만남에서 남북한 직항로 개설에 대한 북한의 반대와 201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김정일이 언급한 북한 군부의 대남 불신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약 1년간의 공백기를 지나 2019년 들어 단거리미사일, 로켓 등 비전략 무기와 재래식 무력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7일 재래식 전력개발을 ‘주체 무기’로서 개발을 강조한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로켓발사 훈련을 통상적인 자위적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다.<sup>136</sup> 그럼에도 이미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계획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술핵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과 로켓무기 개발은 물론 240mm 자주 박격포나 8인치 원자포 등의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37</sup> 북한의 군사훈련이 2018년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및 재래식 포병 위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전술핵 개발가능성의 우려를 높이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군의 한미 군사훈련대응과 관련 김정은 집권이후 지속해 왔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대응군사훈련의 실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다종의 미사일 발사훈련 등 재래식 무기체계 현대화를 통한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야간 열병식에서 공개한 남은 기간 신형 ICBM 혹은 SLBM의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은 11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한·미 대응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

136 “김여정 당제1부부장 담화,” 『로동신문』, 2020. 3. 6.

137 요미우리 신문사 저, 한결기획 편역, 『핵무기와 미사일』 (서울: 자작나무, 1998), pp.125-143.

에 2021년 이후에나 시험발사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간부변화의 전망: 장기집권 기반의 세대교체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군의 간부인사 부문에서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간부변화 부문에서는 군의 주도세력의 변화를 알리는 북한군 수뇌부 인사와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어왔다.

북한군내 주도세력은 군사지휘관 중심에서 당관료 출신과 정치위원들로 변화되었으며 변화의 양상은 수직적 차원에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북한군의 전반적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12년 당시 김정일의 조기 사망에 따른 젊은 후계자 김정은의 불완전한 군부장악, 선군 시기의 반작용으로 당의 군 통제를 확립하려는 당관료,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과 북한군을 이끌어 왔던 기존 간부들과의 간격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군의 주도세력이 변화된 결과는 김정은 집권 초기 군사정책결정 기구인 당중앙군사위원회 인원 구성과 오늘날의 당중앙군사위원 구성을 비교해 보면 뚜렷히 나타난다. 과거 군사지휘관 중심의 당중앙군사위에서 탈피한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는 군 출신을 현역 군사지휘관으로 최소화하고 내각 등 비군사 부문의 책임자들을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참가시켰다. 이는 과거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정책결정을 비군사 부문이 지원토록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중앙군사위의 군사정

책결정이 민간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시기 8년 동안 총 8회 개최된 열병식 중 북한군 창설일 기념 열병식은 1회에 지나지 않는다. 1992년 이후 김정일 생존 시기의 12회 중 4회가 북한군 창설일 열병식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횟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의 공개활동 수행인원으로 군 출신 보다는 당관료들이 증가했으며 국가주요 행사의 주석단 구성에 있어서도 군 인사 참여 비율이 축소되었다. 매년 북한군 주도로 개최되는 다양한 ‘군사대회’의 횟수도 2017년 11건에서 2018년에 4건으로 축소되었으며 내용에서도 군사지휘관 주도가 아니라 당관료들이 주도하였다.<sup>138</sup> 김정은 집권 시기 변화된 주도세력하에서 2018년 9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군을 통제하는 남북군사합의서의 도출은 단순히 기만전술이나 시간 별기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남북군사합의서는 김정은과 북한의 주도세력이 변하지 않는 한 북측이 먼저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여 북한 군부로 하여금 북한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군 간부의 교체가 수직적 차원에서 짧은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한 결과, 북한군 간부의 연령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간부들의 전면적 세대교체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간부들의 각급 부대 지휘관 복무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짐으로서 군단장 등 고위급 간부로서의 경험과 자질의 부족이 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2014년 이후부

터 급격히 증가한 북한군의 군단급 부대의 쌍방실기동훈련 등 집단적 협동군사훈련의 증가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2019년을 지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에만 집단적 협동군사훈련을 6회나 실시함으로써 김정은 집권 8년 중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집단 군사훈련실시를 기록하였다. 2020년의 집단적 협동군사훈련의 증가는 2018년 전반적으로 위축된 군 관련 활동과 전무한 군사훈련의 반작용의 일환으로 군사간부 교체에 따른 숙지훈련 이외에 일선 부대의 기강확립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한군의 집단적 협동군사훈련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군의 주요 간부의 교체와 관련하여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은 시험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시기 김정은의 빈번한 군간부 교체가 김정은의 성급하고 성과지향의 인사 스타일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니면 군부장악을 위한 김정은의 일련의 검증 과정이었는지가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또한 김정은의 군 간부교체는 군부장악이나 권력공고화 차원을 넘어 향후 40년 이상을 통치해야 하는 김정은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경우 개별적 과오에 따른 교체를 제외하고 김정은 집권 초기 보였던 북한군 주요 간부의 빈번한 교체 현상은 조만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교체가 되더라도 개별사안으로 최소화해 그칠 전망이다.

이러한 북한군의 위상, 무력, 간부 부문에서 보인 변화의 방향성은 협상이나 대결에 대비한 대외 지향성보다는 장기집권과 군사 부문의 영향력 제한이라는 대내 지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이후 북한은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력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

138 고재홍, 『북한의 군축제외와 군부의 위상변화-정량적 접근』, pp.58-60.

해 전술핵 개발과 함께 순차적인 비대칭 재래무기의 현대화에 주력하면서 군력강화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북한군이 더 이상 체제의 비군사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북한군을 통제함으로써 향후 30~40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장기집권 기반 형성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Abstract

---

### Change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Military since Kim Jung Un's rule

**Ko, Jae-Ho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various sectors since Kim Jung-un took power.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 transformation is aimed to lay the foundation for Kim Jung-un's long-term rule or whether it is the beginning of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After Kim Jung-un came to power,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continued to decline due to "anti-military-first policy"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s armed forces have focused on developing the asymmetric strategic weapons. In the major cadr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generational change in line with young leaders has been carried out extensively.

As a result, the decline in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led to the expansion of the party's military control, and the strengthening of asymmetrical force has led to the modernization of conventional weapons. The frequent vertical replacement of military cadres has led to a lack of experience and qualification as major cadres.

In the future, North Korea is expected to continue its policy of strengthen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by continuing to develop conventional forces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actical nuclear weapons. At the same time, Kim Jung-un will make efforts to lay the groundwork for a long-term rule that can last for the next 30 to 40 years while consolidating his military leadership.

#### Keywords

Kim Jung-un,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rmed forces, military cadres, long-term rule.

## 참고문헌

- 고재홍. 『김정일체제의 북한군연구』. 서울: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 \_\_\_\_\_. 『최고사령관의 위상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북한의 군축제의와 군부위상의 관계: 정량적 접근』.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과학원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상』.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5.
- 한국국방연구원 편. 『북한군 현 실태 (I)』. 서울: 국방연구원, 2014.
- \_\_\_\_\_. 『북한군 현 실태 (II)』. 서울: 국방연구원, 2014.
-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승철 편저. 『김정은의 11가지 딜레마』. 서울: 늘품플러스, 2014.
- 대한민국국방부 편. 『국방백서 2014』. 서울: 국방부, 2014.
- \_\_\_\_\_. 『국방백서 2016』. 서울: 국방부, 2016.
- \_\_\_\_\_. 『국방백서 2018』. 서울: 국방부, 2018.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9』. 평양: 백과전서출판사, 2000.
- \_\_\_\_\_. 『백과전서 1권』. 평양: 백과전서출판사, 1983.
- 북한연구소 편. 『북한군사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8.
-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군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외국문출판사편집부 편. 『문답집 4 조선에 대한 이해(군사)』.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 요미우리신문사. 『핵무기와 미사일』. 한결기획 편역. 서울: 자작나무, 1998.
- 이교덕 외. 『북한 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Books, 2008.
- 정보사령부 편. 『북한편람』. 서울: 정보사령부, 2000.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4』. 평양: 중앙정보부 편. 『북괴군사전략자료집』. 서울: 중앙정보부, 1974.
-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 합동참모본부 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3.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이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계명성. “제68화 노투사의 흐느낌.” 『위대한 혁명가 이야기 100편』. 평양: 편집부, 2004.
- 김근식. “북한의 핵협상.”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11, 봄).
-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편.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 김일기·김보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59호(2020).
- 김일성. “1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한 결론(1958. 3. 6).”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1958. 2. 8).”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1060. 8. 1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진무. “북한 경제난과 북한의 변화.” 『북한』. 2013. 11.
- \_\_\_\_\_. “북한노동당의 정책결정체제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군사 4』.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6.
-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미 역강압전략연구 - 핵투발수단을 중심

- 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2020.
- 북한시사연구소편.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66호 (2002. 10. 2).” 『Intelligence NK Scope』. 2003. 8.
- 이민룡. “북한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군대조직의 변화.” 한국군사학회 편. 『군사논단』. 45호(2006, 봄).
- 이흥석.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북한 『군엘리트』의 위상변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 『군사』, 113호.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 자유북한방송. “김정은은 왜 공군에 집착하나?” 패션, 역사, 군사의 아침안개블로그. <https://citrain64.blog.me/220262040481> (검색일: 2020. 8. 1).
- 장광열. “김정은 정권의 상징전략에 관한 연구: 핵무력 완성 선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3권. 서울: 육사화랑대연구소, 2018.10.
- 통일부 편. “주요인물 동정.” 『월간북한동향』. 2012. 1 ~ 2019. 12.
- 「당규약 (1961. 9. 18)」.
- 「당규약 (1980. 10. 13)」.
- 「당규약 (2010. 9. 28)」.
- 「당규약 (2016. 5. 10)」.
- 『로동신문』. 1997. 4. 10, 2012. 4. 12, 2014. 8. 28, 2014. 10. 30, 2015. 9. 14, 2016. 6. 26, 2016. 7. 2, 2018. 1. 23, 2019. 2. 17, 2019. 4. 10, 2020. 6. 8, 2020. 6. 14, 2020. 6. 17.
- 『조선보』. 2014. 3. 26.
- 『연합뉴스』. 2015. 3. 3, 2016. 6. 25.
- Robert Osgood and Robert W, Tucker. *Force, Order and Justi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67.
- Klaus Knorr. *The war potential of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6.
- Joseph S, Bermudez. Jr.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N.Y.: I. B. Tauris, 2001.
- Joseph S, Bermudes. Jr. *North Korean Special Forces*, 2nd ed. Maryland: Na-

val Insitute Press, 1998.

INSS 연구보고서 2020-1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변화와 전망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김기정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a href="http://www.inss.re.kr">http://www.inss.re.kr</a>
인쇄일	2020년 12월
발행일	2020년 12월
편집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ISBN	979-11-89781-26-2(94340) 979-11-89781-03-3(전18권)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